

2-16-2015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 신정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Shin Ku Kwak 곽신구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곽신구,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 신정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PASTORAL STRATEGY FOR THE GROWTH OF A RUR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HINJUNG CENTRAL CHURCH

written by

SHIN KU KWA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Ah Young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February 16, 2015

**A PASTORAL STRATEGY FOR THE GROWTH OF A
RUR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HINJUNG CENTRA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HIN KU KWAK

FEBRUARY 2015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
- 신정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아 영 교수

곽 신 구

2015년 2월

Abstract

A Pastoral Strategy for the Growth of a Rur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hinjung Central Church

Shin Ku Kwak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orean churches in rural areas are facing serious challenges: Young people are heading for cities, church members are aging, and shamanistic influences are still strong. In such a context, many people think the growth of rural churches is hardly possible. This ministry focus paper, however, argues that it is.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pastoral strategy for the growth of churches in rural area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describes issues of rural areas and problems that churches in rural areas are struggling with. Chapter 3 introduces two rural churches that provide good examples of great ministries for revitalizing rural churches. After describing the histories, backgrounds, and pastoral philosophies of those churches, the chapter examines how their ministries have been effective for the growth of their churches.

Chapter 4 surveys the Jungeup area where the Shinjung Central Church is located. After describing its history and current state, this chapter examines the Jungeup area demographically, economically, and religiously. Chapter 5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state of the Shinjung Central Church. It then analyzes the membership of the Shinjung Central Church in terms of age, educational level, worship attendance, and so forth.

Chapter 6 presents a pastoral strategy for the growth of the Shinjung Central Church. This strategy has three parts: community service, joint ministry with

churches in cities, and worship renewal. For the community service, this chapter describes how the church serves its neighbors through a haircut service, medical service, bathing service, etc. Concerning the second component, the chapter states how the Shinjung Central Church has worked with churches in cities for joint worship, retreats, a weekend farm, farmers' market, etc. Regarding worship renewal, this chapter examines the church's worship and makes some suggestions. Chapter 7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Ah Young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감사(感謝)는 느낄 감에 사과할 사를 쓴다. 즉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다. 나날이 빠르고 분주해지는 삶 가운데 잠시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대상이 참으로 많음을 깨닫게 된다.

가장 먼저 매사에 부족하고 충실하지 못한 나에게 신정중앙교회 공동체를 이끌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의 순간에 인내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시어 오늘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과정 가운데 이정표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김태석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새로운 학문의 기회를 주시고 보다 나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세운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아영 교수님, 최승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인 사랑하는 아내 박새나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이자 아버지이신 고 광영철 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성한 아들이 여전히 투정부려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박정순 여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후원해주신 박훈용 목사, 명성단 사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광신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광신구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농촌 지역과 농촌교회	4
제 1 절 농촌 지역	4
1. 한국의 농촌	4
2. 도시화와 이농현상	5
3. 가족 구조의 변화	7
가. 노인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8
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	10
4. 농촌의 현실과 문제점	10
제 2 절 농촌 교회	11
1. 농촌 교회의 정의	11
2. 농촌 교회의 현실	12
가. 한국 교회의 구조적 모순	11
나. 농촌교회의 목회자	12
다. 농촌교회의 성도	12
라. 농촌교회의 재정현황	13
3. 농촌 교회의 문제점	15
제 3 장 농촌교회 활성화 사례 연구	16
제 1 절 곰소제일교회 사례	16
1. 교회소개	16
2. 곰소제일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17

가.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	17
나. 김장김치 나눔 봉사	17
다. 교통편의 봉사	17
라. 연막소독 서비스	18
마. 사랑의 자장면 봉사	18
3. 평가	18
제 2 절 적성교회 사례	19
1. 교회소개	19
2. 적성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20
가. 교회론 확립	20
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20
다.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	20
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	21
마. 농촌교회 장기목회	21
3. 평가	22
제 3 절 옥산중앙교회 사례	23
1. 교회소개	23
2. 예배를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23
가. 예배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23
나. 교회력에 충실한 예배	24
3. 노인교육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24
4. 평가	25
제 4 장 정읍시 지역 분석 및 교육 문화적 특징	26
제 1 절 정읍시 지역 분석	26
1. 역사	26
2. 지리적 특징	27
3. 인구 분포	27

4. 경제구조	29
제 2 절 교육 문화 종교적 특징	33
1. 정읍시 교육현황	33
2. 문화시설 현황	34
3. 종교적 특징	35
가. 정읍(井邑)의 유래	35
나. 동학농민운동과 천도교	35
가. 정읍사와 무속신앙	38
라. 종교의 경연장	39
제 5 장 신정중앙교회 목회현장 분석	41
제 1 절 신정중앙교회 분석	41
1. 교회의 역사	41
2. 담임 목회자의 철학과 비전	42
3. 교회의 주요 사역	45
제 2 절 구성원 분석	46
1. 연령 분포	46
2. 교육 수준	48
3. 예배 참여도	48
제 6 장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	51
제 1 절 신정 중앙교회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성장 방안	51
1. 미용봉사	51
2. 의료봉사	55
3. 독거노인 반찬지원	58
4. 이동목욕봉사	59
제 2 절 도심 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한 교회 성장	62
1. 도시교회의 국내선교	63

2.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관계	64
3.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연합방안	66
가. 연합예배	66
나. 농산물 직거래	69
다. 주말농장	71
라. 수련회 및 각종 행사 유치	72
마. 장학 재단 및 자매결연을 통한 연합	73
제 3 절 예배의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	74
1. 농촌교회의 예배	74
가. 농촌교회와 동족부락(同族部落)	75
나. 농촌 교회 예배의 문제점	76
2. 농촌 교회 예배 활성화 방안	83
가. 예배의 본질 회복	83
나.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 개발	92
제 7 장 결론	100
부 록	103
참고문헌	108
Vita	111

표 목 차

<표 1> 전라북도 농가 및 농촌인구 통계(2003-2013년)	7
<표 2> 평균가구 소득비교 (2012년)	9
<표 3> 지방회 소속 농촌교회 교인 평균 연령	13
<표 4> 지방회 소속 농촌교회 경상비 (2013년 2월 기준)	14
<표 5> 농촌교회 목회자의 사례비(지방회 소속 12개 교회)	14
<표 6> 정읍시 인구 및 세대 현황 (2014년 5월 1일 기준)	27
<표 7> 정읍시 공업단지 현황	30
<표 8> 정읍시 주요 생산품 현황	31
<표 9> 전라북도 국도립공원 관광객 현황	31
<표 10> 내장산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2013년)	32
<표 11> 정읍시 학교 현황	33
<표 12> 정읍시 문화 체육시설 현황 (2013년 기준)	34
<표 13>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 시설 현황	37
<표 14> 정읍시 종교현황	38
<표 15> 2010년도 신정중앙교회 교인연령분포 (2010년 5월 기준)	47
<표 16> 교회 별 미용봉사단 현황	54
<표 17> OECD 보건수준보고서 (2011년 기준)	56
<표 18> 정읍시 이동목욕서비스 수혜자 통계 (총 400명 대상)	61
<표 19> 도시교회의 국내선교현황	64
<표 20> 농촌교회 재정 및 선교비 의존도	65
<표 21> 도시교회 국내선교부(회) 현황 (2013년 기준)	67
<표 22> 농산물 유통구조와 가격변화	98
<표 2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배순서와 신정중앙교회 예배순서	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초대 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괄목할 만한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130년 남짓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는 전 국민의 20퍼센트가 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50대 교회 중 23곳의 교회¹⁾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흥 속에서 많은 한국 교회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재정 규모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가고 있다. 예수께서 그의 피 값으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존립 목적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에 침체의 위기를 겪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외면과 무시를 당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자정의지는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아울러 그 해결 방안이라는 것도 교회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고자 한다. 엄밀히 말해 이러한 태도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병폐는 내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은 먼저 그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치료의 과정과 고통을 인내할 때 완쾌될 수 있다. 교회도 스스로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회복과 진정한 영적 부흥을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목회자의 의식 변화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세속적 가치를 기준으로 목회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

1) 정해영, “세계 50대 교회에 한국 23개,” *미주 크리스천 월드지*, 1993년 2월 8일.

의 기준에 맞춰가는 교회가 각광을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목회자들도 성과위주와 무사안일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를 파송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도심지의 자립교회는 서로 먼저 청빙받기를 원하지만 낙후지역의 미 자립 교회는 목회자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으로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전임목회자가 정년퇴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자립 농촌교회라는 일차적 이유로 인해 후임 목회자가 부재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전임 목회자가 은퇴 후에도 2년 이상을 목회하며 명분을 유지했지만, 그것마저 한계에 달해 교회가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다행히 본 연구자가 부교역자로 있던 전주성결교회에서 은퇴 목회자의 후생을 책임지고 교회 재건에 나서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파송할 목회자가 없었던 것이다. 전주성결교회의 부교역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교회의 담임목회자로 파송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본 연구자에게 부임할 것을 권하게 되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저 없이 부임을 결정하였다. 34살의 어린 나이에 성도 평균연령이 70이 넘는 농촌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현실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농촌교회의 정립과 성장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농촌교회는 외면과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임 후 3년여의 목회기간 동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농촌교회도 성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성장 방안을 연구 도입하는 것이 농촌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도 확신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도심지 교회와 농촌교회 목회를 모두 체험한 본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말년 목회자의 유배지 개념의 농촌교회가 아닌 젊은 목회자의 첫 목회지로서의 농촌교회가 그 배경이다. 농촌교회의 성장이 본 논문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며, 그저 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농촌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로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수많은 교회 성장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대에 불행히도 농촌교회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 여전히 농촌교회는 그저 현상유지만 해도 되는 곳, 고령의 성도들에 맞춰 연로한 목회자가 부임해야 하는 곳,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가능하면 잠시 스쳐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있어서 지역적 제약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서적 진리에 입각한 한국의 농촌교회 연구를 통해 희망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정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 현장 분석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방법의 발견 및 적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총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의 문제 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한국의 농촌 지역과 농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어려운 농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농촌 교회의 활성화를 이룬 부안의 곶소제일 교회, 순창의 적성교회, 그리고 상주의 옥산중앙교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교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교회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특별히 도심 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한 상생의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 한다.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교회 성장 방안, 도심 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한 교회 성장 방안, 그리고 예배의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7장은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본 연구를 맺을 것이다.

제 2 장

농촌 지역과 농촌교회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농촌 지역 공동화 현상과 고령화 현상은 더 이상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심각해졌다. 더불어 농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폐쇄기रो에 놓여 있다. 도심 교회에서는 전혀 직면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농촌목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농촌과 도시의 단절이 심각하다는 의미겠지만, 동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를 위한 시작점은 당연히 농촌과 농촌교회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피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먼저, 현재 한국의 사회 구조 속에서 농촌의 모습을 파악하고 농촌 교회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농촌 지역

본 절에서는 먼저, 농촌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경제에 대한 개괄적 언급과 함께 농촌 지역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도시화와 이농현상을 다룰 것이며 이로 인한 또한 농촌지역의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농촌의 현실과 문제점을 점검해 볼 것이다.

1. 한국의 농촌

한국의 국토는 반도형태로 북쪽은 대륙과, 나머지 삼면은 바다와 맞붙어 있다. 남북 간 최장 거리는 제주도를 포함해도 불과 840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전 국토의 70퍼센트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촌락, 부

락 형태의 생활양식을 유지해 왔다. 농촌은 한국사회의 대표적 촌락형태이며 입지조건이나 경제, 사회구조, 주거 및 협동체계 등의 많은 부분이 농업과 상호 관련되어 형성되어 왔다.

농촌은 사전적으로 “제 2, 3차 산업 종사자가 밀집한 지역”²⁾을 뜻한다. 한국의 농촌은 단순히 지역적 특징으로만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혈연(血緣), 지연(地緣) 및 시대상 등의 외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는 농촌을 중심으로 부족사회를 이루며 발전해왔다. 자연적 인구 증가는 농업 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생산량의 증대는 잉여생산물을 통한 시장경제 및 도시화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농촌경제의 주를 이루던 자급자족(自給自足)의 경제 원리는 유통과 상품경제의 발전 속에서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이르러 성립된 자본주의경제 원리는 결국 농촌의 자급자족경제 구조를 붕괴시키고 만다.

농촌경제의 붕괴로 파생된 잉여 노동력은 대규모도시 진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속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감당하게 된다.³⁾ 한국사회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도, 농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도시화와 이농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도시화와 이농현상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 또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국가 경제에서 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든다.⁴⁾ 이러한 경제 원리를 여실히 증명하듯 한국의 농촌은 1960년대 후반 공업화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 및 도, 농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인해 대규모 이농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처럼 급격한 이농 현상은 먼저 인구의 도시 집중과 주택, 교통, 교육, 빈부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구성원의 노령화, 여성화라는 질적 변화를 가져

2)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4* (서울: 동아일보사, 1993), 94.

3) 최재율, *농촌과 사회학* (서울: 유풍출판사, 1996), 38.

4) 한국농업정책연구원, *2014 농업산업연감* (서울: 농업정책연구원 편집부, 2014), 28

음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주체를 약화시킨 반면 농업 기계화를 촉진시킴으로서 비농민 소유의 농지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 인구는 34.7퍼센트 감소⁵⁾하였다고 한다. 또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농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전체 경지 169만8천ha 가운데 휴경농지는 5만 4천 600헥타르로 휴경률이 3.2퍼센트에 달했으며, 지난 10년간 3.6배나 증가⁶⁾한 수치라고 한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력을 갖춘 세대가 계속해서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은 대부분 생산과 생활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향약, 두레, 계와 같은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며 지속돼 왔다. 당연히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이해관계는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도적으로 생산에 앞장서는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노동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촌락과 가족 구조까지 바꾸어 버리고 만다.

본 교회가 위치해 있는 전라북도는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지역 인구 감소 원인 보고에 따르면, 신규 취업에 따른 이동이 1위(56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자녀 교육(27퍼센트)과 전근 및 발령(9.5퍼센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⁷⁾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산업화가 가장 미약한 지역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도 전북지역 대학 졸업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56퍼센트⁸⁾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갖춘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며, 그로 인한 복합적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감소로 인한 2차, 3차적 부작용은 농촌 지역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가 덜 이루어져 있는 농촌의 생산 구조는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농업 생산력의 감소 및 농가 부채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2013년도 전라북도 농가 호구 조사에 따르면, 2003년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 1만호 이상의 농가와 5만 여명에 이르는 농촌 인구가 감소⁹⁾

5) 통계청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6)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ra.go.kr/search/totalSearch.jsp>

7) 전라북도, 2013 전북사회조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2013), 87.

8) Ibid., 123

9) 전라북도, 제 50회 전북통계연보 (서울: 대광출판사, 2010), 12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1>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난 10년간 전라북도 농가 및 농촌인구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전라북도 농가 및 농촌인구 통계 (2003-2013)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 (호)	121,000	118,000	122,000	119,000	115,000	113,000	112,000	111,500	111,300	111,000	110,600
농업 인구 (명)	327,000	316,000	319,000	307,000	300,000	290,000	286,000	282,000	279,000	275,000	269,000

<표 1>에 나타나듯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전북지역 농촌 인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및 농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에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국가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기계화 및 자동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된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국내 농가들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이¹⁰⁾ 창궐하거나 자연재해라도 발생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농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농가부채 동향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부채는 27,210,000원으로 1996년 이후 연평균 9.8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¹¹⁾. 반면에 부채 상환 능력은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농가의 생업 포기 및 이농현상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는 산업화와 함께 급변하기 시작했다.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신뢰도 높은 생산 공동체였기에 대가족 구조를 이루어 왔으며, 노동력에 있

10) 구제역, 광우병, 돼지콜레라,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있으며 한 번 발생할 경우 전염범위가 반경 250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전염성이 심각하다.

11) 한국농업정책연구원, 2014 농업산업연감 (서울: 농업정책연구원 편집부, 2014), 488-510.

어서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농촌은 이처럼 남성중심의 대가족, 씨족 부락의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기 시작한다.

이전의 대가족 구조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동체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재산권을 쥐고 있었다. 동시에 여러 세대에 걸쳐 함께 생활하였기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대가족 구조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농촌지역은 노인 가구 및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가. 노인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얼마 전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2.2퍼센트¹²⁾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ed society)¹³⁾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본 교회가 속한 전라북도 정읍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4퍼센트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로 지정되었다.¹⁴⁾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 무려 35개 지역이 초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24.1퍼센트¹⁵⁾에 넘어 초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노인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노인가구란 65세 이상의 노인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뜻한다. 현대 사회구조상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로운 일자리나 노동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당연히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농촌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여전히 농촌의 가치 생산은 자급자족의 생산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해도 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2012년은 평균가구 소득비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장애인 가구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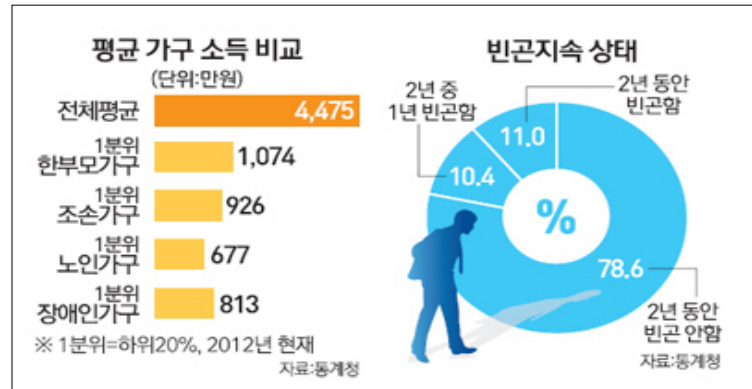
12) 통계청 보도자료 홈페이지(<http://kostat.go.kr>)

13) UN(국제연합)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7~14퍼센트 사이를 고령화 사회로 지정

14) 정읍시의회 보도자료, 초고령화에 따른 정읍시 행정은 어디로 가는가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2013.11.1)

15)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자료 (<http://kostat.go.kr>)

<표 2> 평균가구 소득비교 (2012)¹⁶⁾



노인가구의 지속적인 빈곤은 한때 경제의 주체였던 세대가 감당하기에 매우 가혹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노인가구의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사별을 통해 발생하던 독거노인 가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황혼 이혼의 증가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나 관리자 없이 홀로 방치된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일반 노인 가구에 비해 1/3에도 못 미치는 생산성과 네 배 이상의 사고 위험¹⁷⁾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노인자살률은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10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¹⁸⁾. 결국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리에 등극하고 말았다. 의외의 사실은 도심지의 노인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겪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소외감이 한적한 농촌보다 클 것으로 여기지만, 반대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의 노인 가구는 도시에 비해 복지혜택의 변두리에 놓여 있어 그만큼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인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는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16) 통계청 보도자료 홈페이지(<http://kostat.go.kr>)

17) Ibid.

18)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https://www.kihasa.re.kr/html/jsp/main.jsp>

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가 낳은 또 다른 현상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이다. 낮아진 출산율 속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남아선호 사상은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야기 시켰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 거주 남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비교적 낙후된 국가의 여성들은 상당수가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통해 최근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통계청의 국가 통계포털 발표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다문화가정)는 현재 90,489명¹⁹⁾에 이르며, 그 중 농어촌 혼인통계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 6,458명 중 38.3퍼센트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여성과 혼인²⁰⁾했다고 한다. 문화,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부적응 및 이혼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농촌의 현실과 문제점

이전의 농촌은 활발한 생산 활동 속에서 도시가 줄 수 없는 여유와 풍요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의 농촌은 더 이상 풍요롭거나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경제 개발과 도시화는 농업인구를 꾸준히 감소시켰으며, 고령화를 촉진시켰다. 도, 농간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압력 속에서 농민들의 삶은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²¹⁾. 더 큰 문제는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 속에서 농촌의 현실은 더 이상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촌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다음 절에서는 농촌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9)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 보도자료, *농촌다문화가정을 우리 품으로* (한국농어민신문, 2013.06.04)

21) 최재율, *농촌과 사회학*, 161.

제 2 절 농촌 교회

본 절에서는 농촌 교회의 정의 및 농촌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농촌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1. 농촌교회의 정의

대부분의 농촌은 소규모 촌락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적으로 면(面)이나 리(里) 단위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를 농촌교회라 한다. 농촌교회의 신도의 대부분이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도 농사 계획과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²²⁾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은 설립 후 재건축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낙후된 상태이며, 목회자와 성도의 부재, 재정적 빈곤 등으로 인해 폐쇄되는 교회도 속출하고 있다.

2. 농촌교회의 현실

본 항을 통해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불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본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제한한다.

가. 한국교회의 구조적 모순

본 교단은 60개 지방회와 3,500개의 지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49개국에 55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²³⁾ 3,500개의 지교회 중 약 70퍼센트는 미자립 소규모 교회들이며, 이는 부교역자 없이 담임목회자 홀로 사역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교단의 목회자는 선교사 및 부교역자 포함 약 5,000명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및 다수의 지방 신학원을 통해 한해 평균 300명가량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다. 즉, 목회 현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목회자는 과잉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교회는 목회자의 부재로 폐쇄기로에 놓인 곳이 많다. 이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대도시 혹은 대규모 교회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수는 많지만 미자립 교회가 70퍼센트에 육박하는 것과 목회자는 끊임없

22) 왕인근, *현대의 농촌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3), 21.

2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www.kehc.org

이 양산되는데 목회자가 없어 폐쇄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나. 농촌교회의 목회자

일반적으로 농촌교회 목회자를 연상할 때에 대부분 지극한 노년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1970-80년대를 거치며 많은 농촌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설립당시의 목회자가 은퇴 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농촌 목회자의 평생이 그 교회의 역사와도 같았으며 이런 이유로 농촌교회 목회자의 모습이 노년의 목회자로 정형화 된 것이다. 사실 한 명의 목회자가 교회의 설립부터 은퇴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농촌교회 기피현상에 따른 후임 목회자 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창기 농촌교회는 농업의 활성화와 혈연으로 맺어진 지역의 결속력으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자립 부흥할 수 있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는 지역적 특성을 제외하면 규모 및 목회적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과도한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농촌의 낙후는 직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활발하게 운영되던 교육부서 및 평신도부서는 고령화와 함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연쇄적으로 교회의 인력 및 재정 부족 현상까지 불러오게 된다. 역동적으로 운영되던 농촌교회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촌교회의 복합적 문제들은 신학생 및 젊은 목회자들이 그 곳을 기피하게끔 만들었다. 결국 열정과 노력으로 농촌교회를 설립한 목회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여력도 남지 않은 현장에서 후임목회자의 부재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이중고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다. 농촌교회의 성도

본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북중앙지방회의 38개 교회 중 농촌교회 12곳의 성도 평균연령을 조사한 결과 <표 3>²⁴⁾에 나타난 대로, 총 교인 수 415명 대

2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북중앙지방회 소속 12개 농촌교회의 교세통계표 및 지방회의록을 통해 조사하였음

비 60세 이상 노년 성도의 수가 2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49.8퍼센트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농촌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비단 교인 수의 감소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의 고령화인 것이다.

<표 3> 지방회 소속 농촌교회 교인 평균 연령

	교회	ㄱ	ㄴ	ㅇ	ㅎ	ㄷ	ㅌ	ㄴ	ㄴ	ㄷ	ㄴ	ㄷ	ㄴ
	총 교인수	36	25	12	31	10	125	15	16	29	82	9	25
1	20세미만	4	0	0	0	0	19	0	0	0	7	0	0
2	20-30세	3	0	0	0	0	7	0	0	0	8	0	0
3	30-40세	5	0	0	0	0	4	0	0	0	10	0	1
4	40-50세	6	4	0	9	1	12	6	6	10	17	2	5
5	50-60세	2	5	3	8	3	23	3	2	4	12	3	8
6	60-70세	7	6	4	4	3	28	2	3	6	11	1	6
7	70-80세	4	6	3	6	2	22	2	4	3	15	2	2
8	80-90세	3	4	2	3	1	10	2	1	6	9	1	3
9	90-100세	2	0	0	1	0	4	0	0	0	3	0	0

농촌 거주자의 경우 나이는 곧바로 생산력과 연결된다. 즉,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은 그만큼 생산의 주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력의 감소는 교회의 재정 악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라. 농촌교회의 재정 상황

<표 4>²⁵⁾는 2013년도 2월을 기준으로 지방회 소속 농촌교회의 경상비를 표로 만든 것인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 농촌교회 중 경상비 5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9 곳이다. <표 3>과 연계해 보면 교인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재정 상태도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현재 미자립 교회에 속한다. 외부의 후원이나 선교비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교회의 재정악화는 목회자의 빈

25) 지방회 소속교회의 교세통계표 및 지방회의록을 열람하여 조사하였음.

곤으로 이어지며, 이는 목회자들의 농촌교회 기피현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최근 폐쇄되는 농촌, 개척 교회는 증가하는 반면 도시의 대형교회 부목회자 경쟁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표 4> 지방회 소속 농촌교회 경상비 (2013년도 2월 기준)

1	교회	ㄱ	ㄴ	ㅇ	ㅎ	ㄷ	ㅁ
	총 교인수	36	25	12	31	10	125
경상비	91,000,100	35,183,339	10,655,000	17,510,000	11,260,400	136,835,500	
2	교회	ㄱ	ㄴ	ㄷ	ㄹ	ㅁ	ㅂ
	총 교인수	15	16	29	82	9	25
경상비	9,800,000	14,869,900	35,618,690	51,475,035	7,450,000	11,411,000	

농가수익이 높았던 시절의 농촌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목회자의 소비 식량은 풍요롭게 공급되었고 사례비도 빠짐없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농업생산량과 농가수익이 급감한 지금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은 어렵기만하다.

또한 <표 5>²⁶⁾는 지방회 소속 12개 농촌교회의 목회자의 사례비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 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12개 교회 중 월 2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교회의 목회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사례비를 받고 있었는데, 몇 곳은 그것마저도 연 12개월 모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표 5> 농촌교회 목회자의 사례비 (지방회 소속 12개 교회)

사례비	80-100만원	100-120만원	120-140만원	140-160만원	160-180만원	180-200만원	200만원 이상
교회수	3	5	2	0	0	0	2

상여금이나 목회활동비 부분에 있어서도 두 곳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교회는 없

26) 지방회 소속교회의 교세통계표 및 지방회의록을 열람하여 조사하였음

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교회 재정과 목회자 생활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3. 농촌교회의 문제점

농촌의 문제는 농촌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촌의 현실은 고스란히 교회로 전이된다. 농촌의 고령화는 교회의 고령화로 이어졌으며, 이농현상은 젊은 교인의 부족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당연하게도 재정의 심각한 부족으로 연결되었으며, 목회자의 부재라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침체 속에서 역동적인 목회와 부흥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농촌교회는 더욱 기피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농촌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농촌 사회가 붕괴되어 가면서 성서적 관점의 약자들이 대거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가정,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농촌교회 뿐이다. 따라서 농촌교회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농촌교회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 전반에 다시금 희망을 불어 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농촌 지역의 한계와 난관을 극복하고 교회의 활성화를 이룬 교회들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신정중앙교회의 부흥에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제 3 장

농촌교회 활성화 사례 연구

앞 장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과 농촌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어려운 농촌 지역의 여러 한계를 잘 극복하고 농촌교회의 활성화를 이룬 부안의 곰소제일교회, 순창의 적성교회, 그리고 상주의 옥산교회 이 세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농촌 교회의 부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 절 곰소제일교회 사례²⁷⁾

본 절에서는 먼저, 부안에 있는 곰소제일교회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곰소제일교회의 활성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던 곰소제일교회의 지역사회 봉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다.

1. 교회소개

곰소제일교회는 1952년 7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에 최초 설립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이다. 이 교회는 지역적 특성상 어촌과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곰소제일교회도 여느 농어촌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인데 2013년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26.9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진서면의 산업별 종사자는 농민 25퍼센트, 어민 11퍼센트, 자영업 30퍼센트²⁸⁾로 나타나고 있는데, 곰소

27) 배현수, “농촌교회에서 노인목회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참조.

28) Ibid., 74.

제일교회는 상대적으로 상업권이 형성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구밀도나 경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다. 현재 곰소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현수 목사는 2007년도 부임 후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와 다양한 노인목회로 성공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2. 곰소제일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가. 독거노인 밀반찬 봉사

곰소제일교회가 위치한 진서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31가구 215명이나 된다. 이들 중 80세 이상 독거노인 및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회씩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밀반찬 봉사는 현재 노인 10가구와 장애인 5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봉사자가 직접 해당 가구에 방문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밀반찬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과 안부도 점검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 김장김치 나눔 봉사

곰소제일교회는 매년 겨울준비로 김장을 하는데 그 때 필요량보다 더 많은 김치를 만들어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김장의 모든 과정이 성도들과 주민들의 기부로 진행되고 있어서 봉사의 의미가 더 크다. 곰소제일교회는 매년 20kg의 김치를 50가정에 전달하고 있는데 힘든 봉사의 과정을 통해 신자들의 정서적 만족도와 교회의 인지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다. 교통편의 봉사

곰소제일교회가 위치한 부안군은 대중교통 편의가 열악한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버스업체가 자주 파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크다.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이 없이는 병원이나 읍내에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곰소제일교회는 이를 위해 교통편 제공 봉사를 하고 있다. 교회의 승합차나 신자들의 차량을 이용해 급한 용무가 있는 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고 있다. 승용차 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주변 택시 회사와 연계하여 응급 환자들은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고

있다.

라. 연막소독 서비스

농어촌 지역은 특성상 6-9월까지 모기나 파리와 같은 해충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는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방역 소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차량을 이용한 소독은 세밀한 방역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고평소제일교회는 골목과 가정마다 직접 찾아가 효과적인 소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3명의 남성 봉사자가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가지고 가구마다 방문하여 직접 방역 소독을 하는데 지역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다.

마. 사랑의 자장면 봉사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별식을 먹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고평소제일교회는 신자 중 중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교인을 중심으로 8년간 지역민들에게 사랑의 자장면을 제공하고 있다. 사랑의 자장면 봉사는 인근 교회와 장애 시설 및 불우 노인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달 1회 봉사활동을 펴고 있으며 평균 120~150명 정도의 이웃에게 사랑의 자장면을 대접하고 있다.

3. 평가

고평소제일교회는 지역적인 특성과 필요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봉사를 펴고 있다. 배현수는 이전까지 침체되어 있던 교회를 역동적으로 봉사하는 교회로 변화시킨 것이다. 지역의 침체가 교회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교회가 침체된 지역에 활력소가 되며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예외 없이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농어촌에 위치한 교회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진다. 적극적인 지역 사회 봉사와 선교를 통해 주께서 주신 교회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시행하므로 지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고평소제일교회는 농어촌 지역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지역사회 봉

사를 마치 일회성 이벤트나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곳들이 많지만 그러한 태도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화려하거나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다가갈 때에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되고 지역민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수많은 농어촌교회가 지향해야 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곰소제일교회를 사례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

제 2 절 적성교회 사례²⁹⁾

본 절에서는 먼저 적성교회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교회 활성화를 이룬 하나의 출발점이 된 적성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명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는지 평가를 할 것이다.

1. 교회소개

한국기독교장로교단(기장측) 소속인 적성교회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신자들이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포탄의 탄피를 메달아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으로 사용했다는 일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참혹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후 1952년 4월 15일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담임목사인 설상원은 2000년 9월에 부임하였다. 적성교회는 종전 후 전라북도 순창지역의 복음화를 담당하였으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교회이다. 적성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전북 순창군 적성면은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인력은 물론 경제적인 기반도 빈약한 상태로 교회의 성장도 둔화되어 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교회에 당시 31살의 젊은 나이인 설상원은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농촌교회의 부흥의 소명을 안고 헌신한 것이다.

29) 설상원, “농촌지역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 사역”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참조.

2. 적성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가. 교회론 확립

설상원은 부임 후 올바른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여기고 적성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동체성 확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의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연합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파벌이나 당파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농촌교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를 회복하는 최선책이며 동시에 설상원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철학이기도 하다.

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 주인은 담임목사도 교회의 중직자도 장로도 아니며, 어느 특정 성도들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질 때마다 교회의 중심은 흔들리게 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희미하게 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설상원 목사는 14년간 적성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위기를 맞는 것을 경험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지향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안정되며 성장하는 모습을 교우들과 함께 경험했다.³⁰⁾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다.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

설상원은 교회 공동체의 정립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출발하였으며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30) 설상원, “농촌지역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 사역,” 77.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의 친교와 교회 공동체의 일치됨을 경험하고 나아가 복음과 선교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설상원 목사는 적성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교우들에게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목회에 있어서 교회의 규모나 환경, 조건, 프로그램 등의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물론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설상원 목사는 농촌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켜야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비록 농촌교회이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³¹⁾ 따라서 일반적인 교회성장 프로그램의 도입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영성과 건강함을 위한 예배와 봉사, 사랑과 친교 등의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교회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 결과 농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자들 간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

마. 농촌교회 장기목회

설상원 목사는 적성교회에 부임 후 현재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교회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의 거쳐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 기간이 짧다. 열악한 농촌의 환경과 침체된 교회 상황 등이 이유겠지만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설상원 목사가 14년 동안 농촌교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농촌교회가 원하는 목회자는 학력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출중한 목회자, 다양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능통하고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라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³²⁾

31) 설상원, “농촌지역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 사역,” 79.

32) Ibid., 82.

처음 설상원 목사가 부임했을 때 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임 목회자들보다 더 오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때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었으며 동시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정립과 꾸준한 성장도 이루어가고 있다. 설상원 목사는 농촌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선입견과 그릇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건강한 농촌교회 공동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도시의 대형교회는 오래 머물고자 하면서 농촌의 작고 어려운 교회는 잠깐 스쳐가는 곳으로 여기는 목회자의 태도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경한 죄일 뿐이다. 그러한 면에서 설상원 목사는 농촌교회 장기목회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3. 평가

적성교회는 다른 농촌교회와 비교했을 때 참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지역 전체가 고령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침체기에 놓여있다. 또한 주변의 학교들도 학생의 감소 때문에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엄밀히 말해 조금의 교회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른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로 인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설상원 목사의 가장 큰 목표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확립이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 가운데 교회의 생명력과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가는 목회를 펴고 있다. 특히 설상원 목사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단기간 스쳐가는 농촌교회의 한계를 무려 14년 장기목회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동시에 한 명의 성실한 목회자를 통해 적성교회 공동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조금씩 건강해져가고 있다. 이는 분명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구분 없이 모든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며 근본적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 3 절 옥산중앙교회 사례³³⁾

1. 교회소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교단 소속인 옥산중앙교회는 1957년 교회설립 이후 1981년 까지 24년 동안 평균 담임목사의 목회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잦은 목회자의 이동이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에서 신자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여 분립이 되기까지 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다행히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1981년도에 이르러 마침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었다. 재정 자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9년도 기준 전교인이 137명에 이르는 농촌교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옥산중앙교회는 신자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로 일반적인 농촌교회와 비교해 볼 때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과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부 공무원과 교사, 상업 종사자들도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건실한 편이다. 2003년에 부임한 정인식 목사는 예배갱신과 노인교육을 통한 교회부흥을 목표로 꾸준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2. 예배를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가. 예배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목회자는 신자들이 예배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각종 예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³⁴⁾해야 한다. 예배는 교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종합적인 의식이다. 따라서 예배자의 바른 의식과 참여는 교회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사회는 물론 교회에까지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기복주의를 지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인 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옥산중앙교회는 임직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예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일 저녁예배 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3) 정인식, “농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참조.

34) James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19.

나. 교회력에 충실한 예배

정인식 목사는 교회력에 충실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교회력을 지키고 있다. 예전과 관련된 기독교의 절기로는 대림절,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등이 있는데 기독교의 절기는 특히 농촌의 절기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교회에서는 기독교의 절기를 통한 예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³⁵⁾

육산중앙교회는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이라 강조하며 4주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고 사순절 목상집을 사용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순절을 지키도록 교육하여 왔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연속기도회를 갖도록 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성금요일에는 특별예배를 드리며 성찬예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활절에는 이 절기가 기독교에서 가장 크고 기쁜 절기임을 가르치고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가지고 이웃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도록 교육하였다. 주일 낮 예배 설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교회력에 맞춘 설교를 준비하여 선포하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력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다.

3. 노인교육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이며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교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진다. 육산중앙교회는 적극적인 노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농촌의 노인들에게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한글 읽기 쓰기 교육을 시작으로 예배 시간에 찬송과 성경 본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행복노인학교를 개설하여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육산중앙교회의 노인교육은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교회의 입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5) 이원일, “농어촌교회와 교육목회,” 목회와 신학, 2003년 제 10호, 21.

4. 평가

옥산중앙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연구자의 목회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의 역할 감당과 예배 갱신이 근본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를 간과한 채 즉각적이고 세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대부분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농촌교회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옥산중앙교회의 사례를 볼 때 교회 성장은 결코 주변의 환경, 경제수준, 인구밀도 등의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등의 성서적 교회 공동체를 지향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점진적인 성장은 그만큼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며 그 기초 위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옥산중앙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기초를 잘 다짐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환영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농촌교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많은 농촌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 4 장

정읍 지역 분석 및 교육 문화 종교적 특성

앞 장에서는 어려운 농촌교회의 환경을 극복하고 교회의 활성화를 이룬 세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신정중앙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본 교회가 속한 정읍시의 지역 분석과 함께 교육 문화적 특성을 통하여 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제 1 절 정읍시 지역 분석

본 절에서는 정읍지역의 역사, 문화, 인구 분포 및 경제구조를 통하여 정읍시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1. 역사

정읍시는 삼한시대 마한 54개 부족국가 중 초산도비리국이 있었던 지역이다. 백제 때는 고부군의 시산현과 인의현으로 나뉘어 있다가, 통일신라시대인 757년에 정읍이라 개칭되어 태산군(지금의 태인면)에 속하게 되었고, 고려시대 다시 고부군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인 1409년 태산군과 인의현이 합하여 태인군이 되었고, 정읍현이 정읍군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급제 후 14년 만에 오른 관직이 정읍의 초대 현감³⁶⁾이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읍군 8개 면, 고부군 15개 면, 태인군 18개 면이 정읍군으로 통합되어 19개 면으로 변경되었다. 1931년에 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하

36) 1589년 12월 정읍현감으로 부임하여 1591년 3월 이임할 때까지 1년 4개월간 재임하였다.

였고, 1981년에는 정주읍이 시로 승격하여 정주시와 정읍군으로 나누어졌다. 1995년 1월 정주시와 정읍군이 합쳐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되었으며, 2014년 현재 1읍 14면 8동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2. 지리적 특징

전라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정읍시는 대도시인 광주와 전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호남 서해안 지방의 교통 요충지이다. 총면적은 692,66km²로 전라북도 내 6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95년 시행된 시군통합 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읍시는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정읍시는 동남쪽 노령산맥의 줄기로 산세가 수려한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이 연결되어 있고 서북쪽으로 농소동과 상교동, 연지동을 관통하는 호남선 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서해안 지방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정읍은 예로부터 서북쪽의 동진평야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세를 따라 서북쪽으로 흐르고 있는 동진강을 수원으로 하여 비옥한 토지를 이루고 있다. 지리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읍은 대륙성 기후에 속해 겨울철 삼한사온이 명확하다. 연평균 강수량도 약 1,256밀리미터로 높은 편이어서 농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인구 분포

현재 정읍시의 인구는 117,848명³⁷⁾으로 소도시에 속한다. 정읍시의 인구밀도는 전국 84개 도시 중 70위에 해당하는 1제곱킬로미터 당 177.5명³⁸⁾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6>은 정읍시의 인구 및 세대 현황을 표로 만든 것이다.

37) 정읍시청 통계과 www.jeongeup.go.kr

38) 통계청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표 6> 정읍시 인구 및 세대 현황 (2014년 5월 1일 기준)

행정기 관	인구수			구성비			성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지 역	남 자	여 자			
합계	117,848	58,202	59,646	100.00	49.39	50.61	97.58	51,807	2.27
신태인 읍	6,622	3,224	3,398	5.62	2.74	2.88	94.88	3,230	2.05
북면	5,098	2,524	2,574	4.33	2.14	2.18	98.06	2,306	2.21
입암면	3,432	1,681	1,751	2.91	1.43	1.49	96.00	1,674	2.05
소성면	2,420	1,210	1,210	2.05	1.03	1.03	100.00	1,256	1.93
고부면	3,332	1,658	1,674	2.83	1.41	1.42	99.04	1,627	2.05
영원면	2,134	1,034	1,100	1.81	0.88	0.93	94.00	1,090	1.96
덕천면	2,166	1,094	1,072	1.84	0.93	0.91	102.05	990	2.19
이평면	2,690	1,343	1,347	2.28	1.14	1.14	99.70	1,396	1.93
정우면	3,056	1,519	1,537	2.59	1.29	1.30	98.83	1,488	2.05
태인면	4,257	2,148	2,109	3.61	1.82	1.79	101.85	2,073	2.05
감곡면	3,224	1,595	1,629	2.74	1.35	1.38	97.91	1,682	1.92
용동면	2,011	988	1,023	1.71	0.84	0.87	96.58	1,012	1.99
칠보면	2,789	1,379	1,410	2.37	1.17	1.20	97.80	1,328	2.10
산내면	1,489	742	747	1.26	0.63	0.63	99.33	768	1.94
산외면	2,454	1,220	1,234	2.08	1.04	1.05	98.87	1,291	1.90
수성동	18,845	9,405	9,440	15.99	7.98	8.01	99.63	7,560	2.49
장명동	3,785	1,834	1,951	3.21	1.56	1.66	94.00	1,555	2.43
내장상 동	21,034	10,218	10,816	17.85	8.67	9.18	94.47	7,758	2.71
시기동	4,328	2,081	2,247	3.67	1.77	1.91	92.61	1,972	2.19
초산동	8,482	4,198	4,284	7.20	3.56	3.64	97.99	3,199	2.65
연지동	5,117	2,599	2,518	4.34	2.21	2.14	103.22	2,433	2.10
농소동	4,879	2,381	2,498	4.14	2.02	2.12	95.32	2,116	2.31
상교동	4,204	2,127	2,077	3.57	1.80	1.76	102.41	2,003	2.10

<표 6>³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읍시의 인구분포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

39) 정읍시청 통계과 www.jeongeup.go.kr

다. 1읍 14면 8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정구역에서 도심지에 해당하는 8개 동에 전체 인구의 59.9퍼센트에 해당하는 70,674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인구분포도 역시 20대~40대까지의 비율이 8개 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불균형 분포는 농촌 지역의 실질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며 농업 생산성 저하 및 경기침체는 물론 지속적인 이농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시에서 면단위 시계 외 지역 개발을 통한 아파트 3천 세대 건축 및 3만 명의 이주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예산 부족 및 행정적 문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읍시의 인구 분포의 불균형과 더불어 정읍시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다. 바로 저 출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정읍시의 저 출산이 전라북도 내 최고수준⁴⁰⁾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2012년도 폐업신청을 한 정읍시내 병원 네 개소 중 세 곳이 산부인과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읍시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4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⁴¹⁾하기로 했으나 안타깝게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4. 경제구조

국가의 경쟁력과 인구는 여전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읍시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혼적령기의 남녀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데 있다. 계속해서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공업도시도 상업도시도 아닌 관광도시이다. 국립공원 내장산을 기반으로 생산보다는 소비의 비중이 큰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업 및 생산 관련 시설은 개발 속도가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다. <표 7>은 정읍시의 공업단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40) 정읍신문, 2013년 8월 6일자.

41) 정읍시청 인구유입서비스 출산장려지원 www.jeongeup.go.kr

<표 7> 정읍시 공업단지 현황⁴²⁾

지역	업 체 수	부지면적(평)	현황
중소시범공단	10	46,474	가동중
농공지구	3	52,127	가동중
정읍 제 2공단	49	300,000	일부가동
정읍 제 3공단	39	300,000	일부가동
북면 농공단지	24	64,500	가동중
고부 농공단지	16	45,800	일부가동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읍시의 공업 현황은 대부분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정읍시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중공업의 비율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까지 겹쳐 전체 가동 중인 공단은 불과 50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정읍시는 주력 생산품을 선정하고 판매량 증가를 통한 공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태다. 현재 정읍시가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읍시의 주력 생산품은 농업관련 제품이 약 63 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산품의 경우도 안경테나 전구와 같은 경공업 제품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읍시는 공업 생산 분야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매우 어렵다. 나날이 젊은 세대의 진출은 늘어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저출산율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정읍시의 현 주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읍시는 공업과 산업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관광 자원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로 국립공원 내장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표 9>는 전라북도 국도립공원 관광객 현황을 표로 만든 것인데, 이 <표 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 내 국립 및 도립공원 중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 내장산이다.

42) 정읍시 지역경제과 자료(2013)

<표 8> 정읍시 주요 생산품 현황⁴³⁾

품목	업체명	대표자
정읍사과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	김재황
숙지황	웅동 농협	왕기오
정읍참외	농소동 참외 작목반	임성렬
백합	신태인 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	김삼곤
황금배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	김재한
단무지	한국식품	유민국
청결 고추가루	신태인 농협	김병태
느타리버섯	영원느타리버섯 작목반	김상록
단풍약주	정읍 약주 합동공사	신영길
참기름	소성농협	한창석
내장산 치커리	내장산 치커리	이철승
고부 알로에	고부알로에 영농조합법인	김귀자
금오당면	금오식품	장창영
현미유	신양 현미유	이광종
안경테	(주)서전	육동창
전통악기(장구, 북)	동료산업	서기석
전구	조양전구	신명호
삼배	예덕농장	박대순
우유, 요구르트	한.덴마크유가공(주)	김 닐센

<표 9> 전라북도 국립공원 관광객 현황(단위: 명)⁴⁴⁾

	2010	2011	2012	2013	2014
내장산	1,208,241	1,180,241	1,203,589	1,563,008	1,495,884
변산반도	569,204	689,240	685,903	849,206	667,978
모악산	303,039	301,703	381,975	388,644	421,971
선운산	179,975	207,837	216,315	296,129	425,095
대둔산	605,405	742,154	608,276	686,891	694,937

연평균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장산을 찾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확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는 심각한

43) 정읍시 산업과 자료(2013)

44)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013)

재정난 없이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0>은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0> 내장산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2013년도)⁴⁵⁾

월별	관광객 수 (명)			관광수입 (단위:천원)
	내국인	외국인	계	
1	31,317	57	31,373	33,171
2	21,816	60	21,876	24,033
3	29,795	63	29,858	29,462
4	56,603	171	56,774	53,988
5	48,171	183	48,353	46,072
6	35,733	113	35,846	38,550
7	40,075	166	40,241	46,421
8	67,520	155	67,675	77,135
9	34,470	191	34,661	42,109
10	523,564	1387	524,951	448,984
11	380,047	993	381,040	322,043
12	23,141	88	23,234	28,458

<표 10>이 보여 주듯이 내장산의 관광객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과 11월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 평균 관광객의 80퍼센트에 이르는 수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기간에만 활기를 띠는 것은 도시 전체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없다. 매월 평균적으로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아 준다면 1년 내내 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1년에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 포화상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불균형은 물론이요 성수기 외의 기간에 심각한 도시전체의 침체 분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45) 정읍시 전산통신담당관실 자료(2013)

제 2 절 교육 문화 종교적 특징

앞 절의 정읍시 지역 현황 분석에 이어, 본 절에서는 정읍시의 교육 문화 종교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읍시 교육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읍시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읍시는 인구분포대비 학교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촌 지역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가 통폐합 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1>은 정읍시의 학교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1> 정읍시 학교 현황⁴⁶⁾

학교	분류			
	국립	공립	사립	계
유치원	0	38	13	51
초등학교	0	38	0	38
중학교	0	11	9	20
고등학교	0	4	9	13
전문대학	0	0	1	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읍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재단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중학교의 경우 총 20개 학교 중 사립학교가 9곳으로 4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총 13개 학교 중 공립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반면에 사립학교는 9곳으로 그 비율이 무려 69퍼센트나 된다. 학교의 현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까지는 학생 수가 적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각 학교가 더 많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동일 재단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기

46) 정읍시 교육청 자료 (2013)

때문에 A중학교 출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A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B중학교 출신은 B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를 따라 편이 나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수의 고등학교에 비해 정읍시에는 대학이 한 곳 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수험생들이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읍시의 공업 생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 정읍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결국 정읍시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함께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젊은 세대 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2. 문화시설 현황

문화생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주축은 젊은 세대이다. 안타깝게도 정읍시의 고령화는 문화시설의 부족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표 12>는 정읍시의 문화 체육시설 현황을 표로 담은 것이다.

<표 12> 정읍시 문화 체육시설 현황 (2013년 기준)⁴⁷⁾

공연시설				전시시설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0	1	0	1	0	0
지역문화 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 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0	9	2	1	1	1
경기장			등록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골프장	사격장
2	1	1	2	2	0

<표 12>에서 보듯이, 정읍시의 문화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안타깝게도 시설들 중 대부분이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생활을 영위할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도 종교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활발한 문화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관심도 생겨나야 하는데, 정읍시는 현재 그것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47) 정읍시 시설관리 사업소 자료 (2013)

3. 종교적 특징

가. 정읍(井邑)의 유래

정읍시의 ‘정’(井)은 우물을 뜻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시군구 행정 구역 중 ‘井’자를 쓰는 지역은 정읍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 지역의 건립 설화도 우물과 관계가 깊다. 설화에 따르면 원래 정읍의 상수원으로 산중턱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근처에는 절대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한 주민이 실수를 범하여 우물이 말라버렸고 마을 전체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마을의 대표자들이 신령한 여인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을 하였고, 이 여인은 서해의 용왕에게 우물의 원류를 막고 있는 바위를 치워 달라 부탁한다. 폭풍우 속에서도 간곡히 비는 여인의 정성에 감동한 용왕은 다섯 개의 물기둥을 열어 마을에 다시금 물을 공급하였는데,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마을이 다 잠길 위기에 처한다. 이에 신령한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한 개의 물기둥만을 남기고 다른 물기둥은 모두 막아 위기를 극복한다. 그 마지막 물기둥에 우물을 지어 온 마을이 풍요롭게 사용하였으며, 그 우물의 모양을 본떠 정읍(井邑)⁴⁸⁾이라 명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 우물을 ‘큰 새암’⁴⁹⁾이라 부르며 신성시 하고 있다. 시의 모든 지역 행사나 각종 농사 절기에 맞춰 이곳에서 대대적인 시제를 드리고 있으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와 공원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읍시는 우물을 신성시하는 토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신앙의 깊이는 우물만큼이나 깊다고 볼 수 있다.

나. 동학농민운동과 천도교

물락양반의 자제였던 최제우는 서자라는 이유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어려서 부터 총명했던 최제우는 8세에 유학 경전을 모두 독파하였음에도 과거에 응시할 수조차 없었다. 13세에 결혼을 하고 20세 되던 해에 새로운 길을 찾고자 무려 11년 간 유랑을 하며 조선의 부패와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제우는 나라와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도를 세우고자 한다. 이후 10년간 학

48) 정읍시립박물관 [자료실 http://museum.jeongeup.go.kr/](http://museum.jeongeup.go.kr/)

49) 큰 새암의 실제 모습은 부록 1의 사진을 참고할 것

문과 명상에 집중하여 1860년 음력 4월 15일에 마침내 동학의 교리를 정립하게 된다. 동학은 서양의 도인 천주교(西學)와 대비해 동국(조선)의 도라는 뜻이다. 동학은 최제우가 30년에 걸쳐 연구한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에 음양오행설, 역학, 풍수지리설 등 동양의 다양한 사상이 집약된 사상 체계⁵⁰⁾이다. ‘인내천’(人乃天)⁵¹⁾사상으로 집약되는 동학은 고도의 휴머니즘을 지향하며 신분제에 길들여 있던 농민과 하층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최제우를 참형하며 동학 탄압에 나섰다지만 도리어 그 세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역사 최대의 민중혁명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은 정읍시 고부면에서 시작되었다. 정읍시는 명실상부 동학농민운동의 요람인 셈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로서 그의 폭정 아래 민중들의 불만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었다. 조병갑은 임기를 마치고도 물러나지 않고 더 많은 수탈을 위해 재임을 한다. 이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부지방 동학접주⁵²⁾를 맡고 있던 전봉준을 수장으로 1894년 1월 10일에 봉기를 일으킨다. 전봉준은 고부봉기에서 성공한 뒤 무장접주 손화중, 태인접주 김개남 등 각 지역 동학지도자들과 연합해 3월 20일 제폭구민(除暴救民)⁵³⁾, 보국안민(輔國安民)⁵⁴⁾을 목표로 군사를 일으키게 된다. 동학군은 정읍, 고창, 무장 등에서 연승을 거두며 당시 가장 강력한 정부군인 장위영군을 장성에서 격파한다. 이러한 기세로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농민군이 감영(監營)⁵⁵⁾을 점령한 것은 민중혁명 최대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동학은 1905년 3대 교주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정하게 되고, 1914년에는 전국 37개 대교구 280여개 교구를 갖추며 교인 수는 3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 당시 총 인구가 1,500만 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로 명실상부 최대 종단의 자리에 등극한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천도교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199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천도교도는 28,184명에 불과했으며, 2003년에 이르러서는 기타종교항목에 묶여서 따로 자료를 확인할 수

50) 최용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서울: 페이퍼로드, 2006), 342

51)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주된 교리

52) 동학(東學)에서 교구 또는 포교소, 즉 접(接)의 책임자

53) 제폭구민(除暴救民):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함

54)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55) 감영(監營): 현재의 도청소재지

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동학과 천도교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동학사상을 숭상하며 고부지역에 대규모 동학농민기념관 설립 및 관련 시설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13>은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 시설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 시설 현황⁵⁶⁾

구분	시설현황
황토현 전적지	기념탑 1기, 구민사 16평, 기념관 40평 연못 2개소 900평, 제민당 40평, 광장 10,000평 동상 1기, 주차장 1,850평, 관리사 32평
전봉준 선생 고택	고택 13평, 주차장 852평, 관리사 16평
만석보 유지비	만석보 유지비 1기, 주차장 400평

또한 동학농민운동 기간에 맞춰 기관 및 학교의 각종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정읍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⁵⁷⁾. 천도교의 발흥지라는 정읍 지역민들의 강한 자부심이 타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특히 동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인 서학인 기독교에 대하여는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이러한 지역 정서 때문에 교회가 들어서기 힘들며,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 하에 지역 전체에 무속신앙이 확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정읍시의 종교 선호도에서 불교를 비롯한 각종 토속신앙의 선호도는 높은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 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읍시 행정 구역 내에 무려 200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은 7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표 14>에 나타나듯이 정읍시의 4대 종교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려 200개의 교회와 713명의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정통교단이 아닌 이단 교파도 포함된 수치겠지만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기독교인 비율은 높지가 않다. 이는 현재 정읍시에 있는

56) 정읍시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자료 (2013)

57) 동학혁명에 대한 정읍시의 개발현황은 부록 2의 사진을 참고할 것

교회들 대부분이 자립 및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4> 정읍시 종교현황⁵⁸⁾ (단위: 개소, 명)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200	713	15	18	63	87	3	3

다. 정읍사와 무속신앙⁵⁹⁾

정읍사는 작자 미상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가요이다. 이 정읍사는 타지로 장사를 하러간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 달을 향해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내용으로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이 여인은 간절히 소원을 빌던 중 망부석이 되고 만다. 이미 학계에서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와 함께 정읍시에서도 정읍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 및 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사는 1985년에 정읍사 여인을 기리고자 정읍사 공원을 최초 조성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공원 내에 정읍사 예술회관, 정읍사 국악원 및 청소년 수련관 등의 부대시설을 확충 설립해 왔다. 최근에는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공원 확장 및 다양한 문화시설 추가 공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정읍시는 현재 정읍사의 고장이라는 명칭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읍시는 매년 내장산 단풍철과 더불어 대대적인 정읍사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장시간 연습시킨 후 문화 행사에 투입하며 적극 협조하며 모든 학교가 정읍사와 관련된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읍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정읍시민 대부분은 자연스레 정읍사의 무속신앙적인 측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읍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은 토테미즘이다. 달을 향해 남편의 평안을 비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정절을 배운다고 하지만 실상 그 근본에는 토테미즘과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는 최

58) 정읍시 문화 예술과(2013)

59) 정읍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현황은 부록 3을 참고할 것

근 이 정읍사 여인과 달을 형상화한 장식을 가로등과 이정표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하였다. 달을 향해 소원을 빌다가 들이 된 여인이 정읍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특징과 개성이 없던 도시가 정읍사 여인을 통해 확실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고 호응하고 있다. 가뜩이나 뿌리 깊은 무속신앙과 싸워온 교회와 목회자들은 정읍사 관광 및 문화산업 개발로 인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라. 종교의 경연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읍시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내장사(대한불교조계종)를 중심으로 불교가 주류를 이루는 듯 보이지만, 원불교, 증산도, 대순진리회와 같은 근대 신흥 종교 및 한국 SGI(일명 남묘호렌계교), 신천지, 통일교, 섭리교(전 JMS)등 이단 사이비 종교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 원불교도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원불교의 시작이 1916년 정읍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익산이며 본산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적극적인 포교와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정통 불교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다. 한 해 평균 1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자본이 불교계로 유입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국립공원 내 22개 사찰이 거둔 수입은 1천 4백 51억 7천 만원⁶⁰⁾에 육박한다. 한 해 평균 1백 1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는 타 종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너무도 쉽게 축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포교 및 사회봉사를 시행할 때 그 파급력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기독교 이단 교회들의 창궐도 심각하다. 보육원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섭리교(전 JMS)는 이미 많은 학생들과 노인들을 현혹하였으며, 안상홍을 주축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는 정읍시에서도 손꼽힐 만큼 큰 예배당을 지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변화가에 나가보면 어렵지 않게 신천지의 포교현장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의외로 그들을 향한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라는 사실에 의아하게 될

60) 연합뉴스 (2006년 10월)

것이다.

이처럼 정읍시는 뿌리 깊은 무속신앙과 다양한 종교들의 경합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 많은 걸림돌이 산재해있는 지역이다. 그래도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신흥 종교와 이단 사이비들은 도리어 농촌지역으로 포교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의 경연장과도 같이 변해버린 정읍시로 인해 농촌교회의 평화까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농촌 목회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교회의 위기 극복 및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제 5 장

신정중앙교회 목회현장 분석

신정중앙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앞 장에서는 교회가 속한 정읍시의 지역 및 교육 문화와 종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본 장에서는 신정중앙교회의 여러 현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신정중앙교회의 분석

본 절에서는 교회활성화를 이룰 목회 현장인 신정중앙교회가 거처온 지난 역사를 간단히 약술하고 교회 담임 목회자인 본 연구자의 목회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교회의 주요 사역들을 살펴볼 것이다.

1. 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소속인 신정중앙교회는 1979년 5월 21일 초대 담임목사였던 이상진 목사를 통해 설립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처음 위치한 곳에서 2년간 운영되어지다가 1981년 9월 3일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본 지역은 전통적인 문중부락으로 광주 안 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을 전체에 유교적 영향력이 크다. 또한 교회 바로 앞 장에서 언급한 정읍의 원류 '큰 새암'이 자리 잡고 있어 무속행사와 각종 풍요제가 수시로 열린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마을의 큰 반대 없이 이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임목사가 이 지역 출신으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창 농촌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 가구 수 200호가 넘을 만큼 큰 지역 이었다. 때마침 한국교회의 부흥과 맞물려 본 교회도 교인의 수가 1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이 후 1990년대 초반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농촌교회로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도시화와 이농현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고 급속도로 쇠퇴하고 만다. 젊은 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교회는 활력을 잃게 되고, 교회학교마저 폐쇄된다. 200호가 넘던 마을은 70호 남짓으로 줄었으며, 그마저도 노인가구만 남고 만다. 이후 100명을 넘어서던 교인은 40명 미만으로 줄고, 교회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 계속되는 침체와 재정난으로 인해 전임 목회자는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정년 은퇴를 하는 2008년도에 이르러 결국 교회 폐쇄신청에 들어간다. 하지만 교회의 매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생이 보장되지 않은 전임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때마침 교회개척을 준비하던 인근의 전주성결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신규교회 개척도 좋지만 농촌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이 후 전주성결교회에서 전임 목회자의 후생을 지원하게 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부목회자 중 후임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한다. 이 때 당시 전주성결교회의 부목회자였던 본 연구자가 자원하였고, 2010년 5월 16일 부임 후 4년여 동안 본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2. 담임 목회자의 철학과 비전

최근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목회 현장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례를 받는 곳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농어촌의 작은 교회는 외면을 당하지만 도심의 대형 교회는 지원서가 넘쳐나는 것이 오늘의 목회 현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본 교회도 후임 목회자의 부재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각하게 피폐해져 있었다. 그때까지 본 연구자는 대형교회의 부목사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속 지방회 내에 폐쇄가 거론되는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것이다. 당시 주변의 가족 및 지인들 중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격려를 해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문을 닫는 교회에 자진해서 부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오로지 아내만이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동의했을 뿐이다. 본 연구자가 이처럼 무모해 보일만큼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어려운 교회의 상황을 알

고도 외면하면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의 삶은 교회나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미지의 농촌교회로 이사하는 순간에도 그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초기에 분주하고 미숙한 적응기를 거치면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 나갔는데 가장 먼저 농촌교회라는 한계를 두지 않고 교회로서의 철학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농촌교회는 신자의 수, 재정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고정된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몇 가지 방침을 정하였다. 첫 번째로 인근 2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농촌교회 신자의 수평이동을 통한 유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본 교회 주변에 어려운 형편의 농촌교회가 무려 네 곳이나 있다. 모두 위기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곳이며 농촌의 특성상 사소한 일로도 인근 교회로 이동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당연히 본 교회 신자들도 타 교회 신자를 데려와 숫자를 늘리기 원하는 상태였지만 본 연구자는 그러한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참된 목회자라면 함께 동역하던 신자 한 사람만 떠나도 그 상처가 심히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타 교회 신자가 와서 본 교회 빈자리가 채워졌음을 기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작은 농촌 지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신자들의 수준을 떠나 교회가 생존을 위해 자부심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처럼 인근 농촌교회 신자의 유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전입 신자를 바로 등록 및 입교시키지 않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농촌교회 입장과 맞지 않는 방침으로 볼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자는 농촌교회가 아닌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인근 교회 신자의 수평이동을 전면 금지하였음에도 이후 꾸준히 신자가 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가정, 정읍시 도심에 살면서 본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 이전 교회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였다가 본 교회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는 가정 등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미등록 상태로 본 교회에 출석했다는 점이다. 농촌교회를 찾아오는 신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으로 인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동시에 교회와 목회자가 자신을 극진히 대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갑의 위치고 어려운 농촌교회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

각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몹시 위험하며 훗날 결국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에게 본 교회는 오셨다고 바로 등록 시키거나 입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그리고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신중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농촌교회가 아닌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쯤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람이 감이 될 수는 없으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최근 물질과 직위 같은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내에서 대접 받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병들고 쓰러지게 할 뿐이다. 특히 농촌교회는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과 물질이 감의 자리에 오를 위험성이 높다. 본 교회에는 농촌 교회에 왔으니 알아주고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백 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성실히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갖춘 신자 한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신중히 관찰하고 성도들의 평가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본 교회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정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재 부임 후 한 가족이 된 20명의 신자는 교회와 목회자 및 스스로의 신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부목회자 시절 청년부, 중등부, 초등부 등 다양한 교육 부서를 담당하면서 양적 성장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느꼈다. 무조건 더 많은 학생이 나오게끔 해야 하고 더 많은 교사가 헌신하게 해야 하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어본 적은 거의 없다. 해마다 교사는 줄어들고 학생들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 전의 교회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나이와 성별에 의해 나뉘고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본 교회도 그러한 예배를 지향하기로 정한 것이다. 아이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모의 말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아이는 어차피 교육부서에 가도 담당 목회자와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훌륭한 목회자도 뛰어난 교사도 아닌 부모인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따라 본 교회는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나 결코 소란스럽거나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는 없다. 도리어 2대, 3대에 이르는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본 연구자는 물론이요 모든 신자가 깊은 감동을 느끼고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3. 교회의 주요 사역

신정 중앙 교회는 농촌교회이다. 하지만 힘없고 무너져가는 농촌교회가 아니라 농촌에 있을 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담당해야 할 봉사과 선교적인 측면에도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마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밀접하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 씨족부락 내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다 보니 마을과 교회 사이에 알 수 없는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그러한 답을 허물고자 마을의 행사나 모임에 교회가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 작은 부분부터 지역 사회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에 교회 달력을 나누어 주는데, 목회자나 신자가 직접 찾아가 나누어 줄 경우 비기독교인의 경우 부담감을 느끼지만 마을 모임 있을 때 통장이 나누어 주도록 함으로서 부담 없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마을의 행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 교회 승합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의 특성상 자가용 보급률이 높지 않다보니 특별한 경우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통장과 협의하여 언제든지 교회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동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젊은 목회자가 운전을 하면 불편해 하거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통장이나 운전이 가능한 주민이 직접 운행할 수 있게끔 차량만 제공하고 있으며 점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인근 관공서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교회가 소속된 행정 구역 내의 주민 센터, 경찰 지구대, 보건소, 초등학교의 네 곳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각 기관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주민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명절이나 성탄절에 경찰 지구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소의 경우 항상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간식과 음료를 배달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 날 즈음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간식 및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처럼 지역 사회 내에서 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실 농촌교회는 지원금을 받을 입장이지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부임과 동시에 도움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돕는데 익숙한 교회가 되고자 하여 첫 해부터 조금씩 구제 및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다. 우선 동네 독거노인 가구 한 곳을 선정해 월 5만원 씩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단이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의 목회자나 교회가 있을 경우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첫 해에는 독거노인 가구 한 곳과 교회 한 곳을 지원하였는데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동안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와 신자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이후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이듬해에 두 곳의 교회를 지원하고 작년에는 세 곳을 지원하게 되었다. 당연히 올해에는 네 곳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매월 5만원 규모의 지급이 아니라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으며 대상은 교회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나 신자까지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부족한 가운데에도 본 교회는 적극적인 선교와 구제를 통해 농촌교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농촌교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제 2 절 구성원 분석

본 절에서는 신정중앙교회의 구성원들의 연령 분포와 교육 수준 그리고 예배 참여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바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삼을 것이다.

1. 연령 분포

전형적 농촌교회인 신정중앙교회는 한 때 전체 교인의 수가 10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었다. 하지만 본 교회도 도시화라는 사회구조의 지각변동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00명에 이르던 성도는 농촌의 몰락과 함께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노인 뿐 이었다. 결국 교회폐쇄의 위기까지 겪으며 마지막까지 남은 성도는 불과 12명에 불과했다. 본 연구자가 부임했던 2010년도 교인 연령분포는

<표 15>에 나와 있다.

<표 15> 2010년도 신정중앙교회 교인연령분포 (2010년 5월 기준)

연령	58세	60세	63세	72세	75세	80세	83세	85세	87세	92세
명	1	2	1	1	1	1	2	1	1	1

<표 15>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교회는 심각할 만큼 고령화 되어 있었다. 모두가 도시로 떠나가던 때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던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12명의 교인 중 8명이 독거노인이었으며, 사회와 자녀들의 외면 속에 극심한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특성 상 본 연구자가 부임했을 당시 재정은 완전히 메달라 있었다. 비단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활력이 없었으며, 성장에 관한 소망도 없어 보였다. 교회가 위치한 동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70가구 정도가 모여 있었지만 40대 미만의 가구는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척박한 현실 속에 이웃 간의 교류마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34살의 목회자가 젊은 패기로 자원하여 부임하고서 농촌교회의 비참한 현실과 직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춘 지 오래다. 각 교단을 대표한다는 이름 있는 교회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수많은 농촌교회는 어느새 교단과 성도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본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전국 3,500여 교회를 자랑으로 내세우지만, 그 중 얼마나 많은 농촌교회가 폐쇄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대도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도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는 개척교회들의 숫자가 문을 닫는 농촌교회의 숫자를 메워주고 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 수준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2퍼센트 정도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⁶¹⁾. 이는 전체 인구 중 약 8만 명에 해당하며 2위인 일본의 2퍼센트(약 300만 명)와 비교했을 때에도 단연 압도적인 수치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수준과 열정이 이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질문맹률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실질문맹률이란 영수증, 구직원서, 봉급명세서, 약 처방전, 전자제품 설명서와 같은 생활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질문맹률은 무려 38퍼센트⁶²⁾로 OECD 평균인 22퍼센트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문맹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을 뜻한다. 이는 비효율적 의사소통에 의한 업무능력의 저하 및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다는 한국의 젊은 세대마저 실질문맹률이 이처럼 높으니 하물며 노인들은 어떻겠는가. 노인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문맹률과 실질문맹률이 모두 높다. 본 교회의 경우 노인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이며, 문맹이 아니라 하여도 실질문맹에 해당하는 성도가 적지 않다. 당연히 말씀 중심의 기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요, 기본적인 예배의 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심 교회의 경우 영상장비를 이용하거나, 노인 주변의 교인이 도와줌으로서 원활하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교회의 경우 영상장비 및 관리 인력의 부재 및 젊은 성도들의 부족으로 인해 예배 중 노인 성도들을 전적으로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예배 참여도

1936년 미국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⁶³⁾하였고, 그와 동시에 미국교회는 상당한 침체기를 겪는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여가문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전까지 개인 중심의 여가생활을 즐기던 문화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가족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 캠핑 등의 여가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주말에 교회가 아

61) 통계청 2010년 보도자료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6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63) “주 5일 근무제와 생산성,” *매일경제*, 2005년 8월 13일.

닌 교외로 나가는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짊어지게 된다.

70여 년 전 미국교회가 겪은 현상을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당시 기업과 경제인들은 생산성 저하로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려처럼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망하거나 손해를 본 기업이나 공장은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레저, 여가, 문화, 외식 관련 사업⁶⁴⁾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수많은 교회가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만다. 주말만 되면 사람들은 앞 다투어 교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평소 자리를 가득 메우던 도심 교회의 주일 예배는 점점 빈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수많은 교인들의 예배와 주일성수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켜 버렸다. 안정적인 경제력에 여유시간이 더해져 예배가 뒷전이 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⁶⁵⁾ 농촌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의 교회들도 차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대다수 교회의 예배 참여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예배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본 연구자가 발견한 농촌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예배 참여도가 농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일 년 중 농번기에 속하는 3월부터 5월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의 성도들의 예배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농사철기와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농업 특성상 주일성수와 예배는 농촌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는 교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경우에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번기 때에 예배 참여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농번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젊은 일손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라도 고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농번기에 일당을 받고 노동을 하는 것은 농촌 노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주일예배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연히 예배 참여

64) “주 5일 근무제와 생산성.”

65) J. C.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9-42.

도가 높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령 노인들의 경우 장기간 입원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노인요양병원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비교적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심지 보다는 지방에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정읍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더불어 인근에 노인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병원이 노인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농촌의 부모를 요양병원에 장기간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질 정도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그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이다. 심할 경우 몇 년을 입원할 수도 있다. 본 연구자가 부임 후 병원에서 처음 본 노인이 2년 뒤 병원에서 사망한 적도 있다. 수요자가 많다보니 거동이 가능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머무는 노인들이 많다. 도심의 교회가 주말여행과 캠핑에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다면, 농촌교회는 요양병원에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제 6 장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농촌교회 성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농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성장 방안으로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성장 방안, 도시 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한 성장 방안, 그리고 예배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제 1 절 신정 중앙교회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성장 방안

본 절에서는 신정중앙교회가 지난 4년간 행해온 지역사회 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용봉사⁶⁶⁾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06년 전국 50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농촌소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농민이 83.4퍼센트, 1,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19.2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농촌 노인들의 생활비 조달 방법으로는 ‘전액 스스로 마련한다.’는 의견이 31.3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가족이 도와준다.’는 19.1퍼센트로 나왔다. 또한,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받는 경우도 9.7퍼센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의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긴급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66) 전주성결교회 이미용 봉사단과 신정중앙교회 이미용 봉사 현황은 부록 4를 참고할 것

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소득보고서 <http://www.krei.re.kr>

농지연금 등이 있지만 혜택의 기준이 날로 강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적은 농촌의 노인들에게 있어서 미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노인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미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로 이용하는 미용실도 버스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약 10킬로미터)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미용에 드는 평균 비용도 남자의 경우 7,000-20,000원, 여자의 경우 25,000-40,000원 정도로 도심과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용봉사가 가능한 전문 인력 확보였다. 당연히 본 교회에서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심지 교회를 통해 찾아보기로 했다. 효율성을 위해 같은 교단의 인근 지역 교회들을 알아보았으며, 큰 어려움 없이 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도심 교회의 경우 미용계통에 종사하는 교인이 의외로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에 자체적으로 미용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전주성결교회의 미용봉사단장과 만나 두 달에 한번 본 교회를 방문, 봉사하기로 협의 하였다. 본 교회 교인들과 주민들 모두를 배려하여 방문봉사는 주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였다. 봉사단원은 평균 10명 정도로 전문 미용인 4명에 비전문 봉사자 6명이었다. 방문이 확정되면 교회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농촌 마을의 특성상 현수막과 마을 전체 방송을 활용하였다. 물론 교인들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2011년 8월 처음으로 미용봉사가 이루어졌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봉사단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1시가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여러 명이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미용봉사를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사진을 이루었다. 봉사단원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으며, 교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간식을 제공하였다.

방문자가 예상외로 많아 6시로 예정되었던 봉사는 7시 30분까지 연장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준비해온 미용재료들이 모자란 지경에 이르렀다. 그 날 미용 혜택을 받은 주민은 교인을 포함해 60여명에 육박했으며, 이는 미용봉사단 출범 이후 최대 규모였

다고 한다. 봉사단원들은 하나같이 기뻐하며 다음 방문을 기약했고, 마을 주민들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돌아갔다.

첫 미용봉사가 성황리에 끝난 후, 지속적인 성과를 위한 보강을 하기 시작했다. 미용의 특성상 머리를 감는 등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노인들은 찬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온수기 및 샤워 시설을 하였으며, 방문자가 많을 경우 이동식목욕차량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미용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보가 필요함을 느끼고 평소에는 주일 예배 후 식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미용봉사단이 방문할 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로 교체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이후 몇 차례 더 진행해본 결과 농번기에는 방문하는 주민의 수가 급감한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앞두고 미용봉사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래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수정하여 2월, 5월, 9월, 12월 연 4회 방문으로 조정하였다. 이제 미용봉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되었고 인근지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방문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전도효과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이처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니 교회도 무언가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동시에 이정도 봉사의 씨를 뿌렸으니 분명히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미용봉사를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이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자의 생각은 다르다. 무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은 경제학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행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에 베푸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이 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뿐이다. 당장 눈앞의 결과물을 구하느라 본질을 희석시킨다면 분명 잘못이다. 행위에 대한 보상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철저히 지양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듯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본 교회는 미용봉사를 행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누구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거나 교회에 나올 것을 종용하지 않고 있다. 그저 언젠가 그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감동받을 날을 인내

하며 기다릴 뿐이다.

끝으로 농촌교회 미용봉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 급선무인데, 이는 도심의 중대형 교회와의 결연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해본 결과, 교인 수 3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는 미용봉사단이 이미 존재하거나, 설령 없더라도 얼마든지 신규 조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경우가 많다. 본 교회와 동일한 지방에 소속된 도심지 교회 열 곳을 중심으로 미용봉사단과 전문 미용인의 유무 및 봉사가능 여부를 조사해 봤다. <표 16> 교회별 미용봉사단의 현황을 담고 있다.

<표 16> 교회 별 미용봉사단 현황

교회	전주	남전주	서전주	수정	초대	충만한	태평	바울	정읍	삼례
미용봉사단	○	○			○		○	○	○	
전문미용인	○	○	○	○	○	○	○	○	○	○
봉사가능여부	○	○			○	○	○	○	○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지의 교회는 대부분 미용봉사가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교회의 경우와 같이 결연을 통해 체계적으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서로에게 분명한 유익이 될 것이다.

봉사단을 확보했다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비록 무료 봉사활동이지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먼저 대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농한기의 경우 방문자가 평소보다 많아 대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귀가하였다가 시간을 맞춰 오는 주민은 거의 없다. 대부분 교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방문자 상당수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본 교회의 경우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바닥 및 벽지를 시공해 휴게실로 개조하였다. 또한 에어컨과 난로를 설치해 여름과 겨울에도 쉴 수 있게끔 배려했으며, 노인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커피 자판기와 충격흡수용 매트리스를 구비해 두었다. 지역주민들은 그 곳에서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며 교회라는 공간을 거부감 없이 대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면 좋다. 이때 한꺼번에 구비해 놓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번거롭더라도 개인별로 배급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자의 경험상 한꺼번에 준비해 두었을 경우 처음 교회를 방문한 주민 대부분이 서먹해하며 거의 이용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나누어 준 경우 비교적 편하게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식의 개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먼저 온 주민들이 간식을 받았는데, 자신은 받지 못할 경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된다.

농촌교회에서 미용봉사를 시행하는 것은 간헐적이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지역주민들에게 교회가 마을을 위해 하는 일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더불어 교회에 대한 친밀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용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의 준비과정과 재정만 투입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성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지역사회 봉사로서의 효과를 뜻한다.

2. 의료봉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은 OECD 34개국 중 무려 4위⁶⁸⁾에 올라있다고 한다. <표 17>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보건수준 보고서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1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관련 부분은 OECD 평균을 월등히 앞선다. 이처럼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농촌의 노인들은 혜택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오랜 세월 빈곤한 삶을 살아온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지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며, 어지간한 이상은 병원에 가지 않고 최소한의 약품에 의지하여 참아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지내기도 한다. 농촌의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 www.kihasa.re.kr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의료보험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농어촌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방안 검토’⁶⁹⁾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91퍼센트의 의료기관이 시부에 위치하고, 8.6퍼센트만이 군부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병원(결핵병원, 정신병원, 한센병원)의 군부 입지비율이 높는데, 그 이유는 특수병원의 수요가 농촌지역에 많기보다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도시지역으로부터 격리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 17> OECD 보건수준보고서 (2011년 기준)

	기대수 명	영아사 망률	암사망 률	병상수	MRI장 비	평균입 원일	의료비 지출
대한민국	81.1세	3.0/1,000 명	185.1/10 만명	9.6/1,000 명	21.3/100 만명	16.7일	GDP 7.4퍼센 트
OECD 평균	80.1세	4.1/1000 명	210.5/10 만명	4.9/1,000 명	13.6/100 만명	8.8일	GDP 9.3퍼센 트
OECD 순위	13위	9위	5위	2위	6위	2위	6위

농촌의 노인들은 상당수가 만성질환에 고통 받고 있다. 오랜 영농 활동으로 요통, 관절염 등의 질환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됐을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접근성마저 어려워 인근 보건소나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마저 쉬운 일이 아니다.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민들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걸리는 소요시간은 응답자의 24.4퍼센트가 차량을 이용한 경우 5분 이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해 있다고 대답했고, 53.4퍼센트는 10-30분 이내라고 답했으며, 병원의 경우에는 56.2퍼센트가 차량 이용 시 11분 이상 소요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한 사항으로 먼 이동거리와 의료 수준이 미흡해 중증의 질병일 경우 전문의가 있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

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최경환 박사)

문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농촌 노인들의 경우 장시간 동일한 영농활동으로 인해 농부증(農夫症)⁷⁰⁾과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보건지소나 인근 병원의 전문 인력 및 시설 확보도 절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열악한 농촌의 의료 환경에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봉사이다. 의료봉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본 교회는 2012년부터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유치하고 있다. 먼저 활동하고 있던 미용봉사단을 통해 의료봉사단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의료봉사단 역시 마땅한 활동 기회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본 연구자는 미용봉사의 특성상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는 점과 그 시간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으리란 판단 하에 의료봉사단과 협의를 시작했고, 큰 이견 없이 정기적으로 미용봉사단과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결론 맺었다. 전주성결교회의 의료봉사단인 '누가 의료봉사단'은 치과, 내과, 안과 전문의와 두 명의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 명의 의사들은 모두 개인병원 원장으로 주일에는 제약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5월 처음으로 의료봉사단이 본 교회를 방문했다. 같은 날 미용봉사단도 봉사활동을 왔기 때문에 평소 미용봉사 대기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휴게실을 의료봉사실로 활용했다. 상담용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대기자들을 위한 방석도 비치했으며 음료 및 간식을 제공했다. 의료장비의 부재로 전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었지만, 간단한 진료 및 처방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보였다. 증세로는 관절 및 근육통증이 가장 많았고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평소 무료로 대기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고 패치나 약품을 제공 받으니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 후 의료봉사단은 미용봉사단과 함께 본 교회를 대표하는 지역사회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의료봉사단의 경우 조직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교회에 의료봉사단이 있는 경우 마땅한 봉사 장소가 없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70)오랫동안 농사일을 해 온 중년 이후의 농민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증후군(症候群). 과로, 비타민 B one 부족이 원인으로, 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어깨가 결리고, 귀가 울리고 숨이 찬 증세를 보인다.

따라서 농촌교회와 도심교회의 협약을 통한 봉사활동 유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3. 독거노인 반찬지원

몇 년 전 주일 예배 후 교인 한 분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정신을 잃고 몸이 뒤틀리는 증세를 보여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으로 옮겨 무사히 치료했던 적이 있다. 당시 85세의 노인이었던 그 교인의 병명은 저혈당 쇼크로 장기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고 했다. 혼자서 지내고 있던 그 노인은 안타깝게도 굶주린 상태에서 쓰러진 것이었다. 이 일을 겪고 본 연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성도가 70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독거노인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직접적인 보호자가 되어줄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먼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중 식사 상황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이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고 있었다. 하루 세끼를 먹지 않는 이유로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와 ‘혼자서 챙겨먹는 것이 번거롭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인들의 경우 식생활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회가 최소한의 끼니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성공회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의해본 결과 매일 점심시간에 맞춰 해당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교회에서 5km 가량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까지만 배달을 하면 개인이 직접 찾아가는 구조였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교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매 주 밀반찬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일 먼저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교회에 소속된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1차로 선정하니 해당되는 교인이 세 명이였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 우선 이 세 명을 통해 시행해 보기로 했다. 반찬제공은 직접적인 식생활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 나갔다. 최소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을 제공

해야 하는데 노인들의 경우 섭취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리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았다. 아울러 노인들의 입맛과 기호를 고려하여 장아찌, 볶음, 나물, 젓갈류의 반찬으로 다양하게 메뉴를 정했으며 비용은 연 200만원(주 4만원)으로 책정했다.

반찬제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반찬 용기의 통일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릇의 종류나 크기가 다를 경우 일차적으로 의식을 한다. 아무리 내용물이 같고 양에 있어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먼저 보이는 용기를 통해 비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용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또한 반찬을 제공하고 난 후 빈 그릇을 회수할 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늦지 않게 반납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반납을 강조하는 것도 불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당 동일한 용기를 2개 이상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일 빈 그릇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새로 반찬을 배달하며 자연스럽게 수거해 올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갖고 봉사를 할 때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나타난다. 교회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부분만 고려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간과할 때 봉사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 제공 봉사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반찬을 만들어 주기만하면 될 것이라는 처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노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반응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시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현재 독거노인 반찬제공은 교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착과 실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마을과 협의 후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찬제공을 할 계획이다. 여전히 농촌에는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설령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먼저 그들을 향해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교회의 존재가치라 생각한다.

4. 이동목욕 봉사

오랫동안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부엌과 화장실이었다. 주택 안에 모든 시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는 도시의 아파트나 주택과는 달리

농촌의 주택은 부엌과 화장실이 밖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다. 이러한 구조의 주택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농촌 마을에는 전통적인 농촌가옥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오래된 농촌 주택은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동반하는데 그 중 하나가 씻는 문제이다. 새로 건축되는 주택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샤워나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는 많지 않다. 결국 농촌의 노인들은 대중목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동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마저도 용이하지가 않다. 또한 노인 혼자서 목욕을 할 경우 습기로 미끄러워진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낙상을 당할 위험이 크다. 노인 낙상의 경우 골절 및 뇌진탕, 뇌출혈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대한노인재활 의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퍼센트, 80세 이상 노인의 40퍼센트 가량이 매년 낙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 낙상 후 약 10퍼센트는 척추나 고관절, 손목 등의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중증 손상⁷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타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낙상후증후군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농촌 노인들은 세신조차도 마음 편하게 누리기가 어렵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찾던 중 2012년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이동목욕 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로 운영하였으나 2012년도부터 정식으로 법인 인정을 받은 복지단체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도입 초기에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우선 교인들 중 해당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고, 이 후 지역 주민들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동목욕 서비스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혹은 집에 목욕 시설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1-2주마다 1회 방문하여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목욕서비스와 더불어 청소 및 식사준비 등도 병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표 18>은 정읍시에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통계표이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

71) 대한노인재활의학회 <http://www.kagrm.or.kr/>

이 지역 내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평균 연령은 68.54세이며 30퍼센트가 독신가구라고 한다. 이용자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60퍼센트)이며 정부보조금(61.9퍼센트)에 의지하여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다수의 노인들이 타인이나 타기관의 소개(31.3퍼센트)를 통해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표 18> 정읍시 이동목욕서비스 수혜자 통계⁷²⁾ (총 400명 대상)

평균연령	독신가구	기초생활 수급	정부보조	중증환자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경우	서비스 만족도
68.54세	30퍼센트	60퍼센트	61.9 퍼센트	88.7 퍼센트	31.3 퍼센트	42.9 퍼센트

엄밀히 말해 복지센터가 직접 돌아다니며 현장 파악을 하고 복지수혜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농촌교회의 경우 교인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수혜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교회는 2012년부터 이동목욕서비스 센터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연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노인이 2014년 현재 3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계 이후 복지센터의 장과 직원 3명이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그 정도는 더 심하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마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 아직까지는 본 교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홍보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 정도만 감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목욕시설을 교회 부지 내에 갖추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오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소외감과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72)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계자료 <http://www.jeongeup.go.kr>

지역과 교회의 관계성을 약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제는 교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속의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교회에 더 필요한 의식이며 장기적으로 농촌 교회의 생존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농촌교회도 소외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봉사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목욕봉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농촌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봉사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당연히 지역과 교회의 특성, 상황 및 예산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가능한 봉사도 있을 것이고, 불가능한 봉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회의 실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교회로 인해 그 지역에 예수의 사랑과 희생이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농촌교회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건도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지금 농촌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 절실한 것은 연합할 수 있는 동료이다. 다시 말해 서로가 유기적으로 화합하여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⁷³⁾. 물론 농촌교회끼리의 연합도 가능하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상생을 위해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연합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이어지는 절에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동반자적 관계 및 교회성장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도시 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한 교회 성장

앞 절에서는 신정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농촌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농촌교회가 이러한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다. 도시교회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교회의 국내선교는 몇몇 농촌교회에 일정한 선교비를 지급하는 형식이었으

73)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9.

나 이제는 그러한 모습에서 탈피하여 도시와 농촌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상호 연합을 통해 동반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유기적 연합 방안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교회의 국내선교

도시교회는 문자적 의미대로 도시에 위치한 교회를 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 이는 도시교회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사회구조자체가 변혁하던 시기에 한국교회의 구조도 도시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도 도시교회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키는데 일조한다. 교회를 설립할 때 더 이상 성서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게 되었으며 현실적인 주변 상황 분석과 성장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잠재적 성도수라고 표현하는 인구밀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도시나 신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교회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모든 도시교회들이 다 농촌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 다루는 도시교회는 도시에 위치한 성도 수 300명 정도의 교세를 가진 교회로 제한하도록 하겠다. 이는 개척교회나 소규모 도시교회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 교회간의 실질적 동반협력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분류 기준임을 밝히는 바이며, 성도 수와 더불어 국내선교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성 등의 사항들도 고려하여 본 교회 소속 지방회의 5개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표 19>는 도시교회의 국내선교 현황을 담은 표이다. 이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교회는 대부분 국내선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국내선교 활동에 있어서 미자립 도시교회 및 농촌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동일한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도시교회가 생각하는 국내선교는 단순히 선교비 지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지원금을 1년에 60만원(월5만원)에서 120만원(월10만원) 정도로 책정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어려운 교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 보다는 도

시교회의 지원교회 숫자를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9> 도시교회의 국내선교현황

교회명	전주	남전주	삼례	명광	새전주
규모	1,000명 이상	300명 이상	300명 이상	300명 이상	300명 이상
국내선교예산	2,000만원/연	1,000만원/연	1,200만원/연	500만원/연	500만원/연
국내선교활동	선교비 지원	선교비 지원	선교비 지원	선교비 지원	선교비 지원
선교지원교회	20개 교회	15개 교회	10개 교회	5개 교회	7개 교회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도시교회의 국내선교부 활동은 소속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혀 실질적이거나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도시교회는 오랫동안 이러한 방법을 고수해왔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촌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고 도시교회는 실질적이지 못한 도움을 최선의 선교라 착각하며 자축하게 될 것이다. 엄밀히 말해 농촌교회를 살리는 것은 도시교회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더불어 농촌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반자적 인식이 필요하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은 일방적인 도움의 종속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모든 도움에 앞서 공동체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모든 대책에 앞서서 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⁷⁴⁾ 이처럼 서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줄여가는 것이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유기적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2.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관계

고령화와 재정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촌교회는 사실상 많지 않다. 국내선교 및 농촌교회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74) Jurgen Moltmann, *하나님 나라의 지평 안에 있는 사회선교*, 정종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3.

를 거두고 있는 도시교회도 드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농촌교회의 경우 도시교회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지방회 내의 미자립 농촌교회의 연간 재정 및 도시교회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20>은 농촌교회 재정 및 선교비 의존도를 표로 만든 것인데, 이 <표 20>에서 보듯이,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네 교회가 재정의 20퍼센트 이상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표 20> 농촌교회 재정 및 선교비 의존도⁷⁵⁾

교회명	하남	늘푸른	등대	남장수	신인
재정규모/연	17,510,000	11,260,400	7,450,000	11,411,000	9,800,000
지원금	3,600,000	2,400,000	1,200,000	3,000,000	2,000,000
지원교회(월)	10만원 2교회 5만원 2교회	5만원 4교회	10만원 1교회	5만원 5교회	5만원 3교회 기 타
비율	20.5퍼센트	21.3퍼센트	16.1퍼센트	26.2퍼센트	20.4퍼센트

지원형태를 보면 도시교회 한 곳당 평균 월 5~10만원씩 연12회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교회 한 곳당 평균 3-4개 도시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농촌교회의 도시교회 지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농촌교회의 자립은 어려워지며 성장의 기회도 멀어지고 만다. 농촌교회 목회자는 막연한 교회성장을 기대하기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더 많은 도시교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시와 농촌교회 간에 지원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요즘엔 무작위로 도시교회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교회의 어려운 처지와 도움을 종용하는 서신이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늘어가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후원해주는 도시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교회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관계가 자연스레 갑과 을의 관계로 굳어져 감을 뜻한다. 이처럼 부조리한 도시와 농촌교회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7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북중앙지방회2013년도 회계자료

도시교회가 국내선교와 농촌교회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농촌교회도 도시교회의 도움으로 인해 그나마 존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농촌교회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낭비에 불과하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지금의 농촌교회는 후원금 수급보다 근본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농촌교회는 물론이요 도시교회의 인식변화 및 적극적인 실천으로부터 가능해질 것이다.

3.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연합 방안

가. 연합예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상하관계의 구조로 맺어져 있다. 이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모순되게도 시장 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가치평가 기준이 성도수와 재정으로 변질되었으며 많은 도시교회들이 교세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후원교회 명단에 더 많은 농촌교회 이름을 올리려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교회 성도들은 후원교회 명단만 보고 자신들이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노라 착각하고 있으며 농촌교회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려하지 않는다. 결국 매월 지급되는 후원금이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농촌교회는 이것마저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동시에 더 많은 고리를 연결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여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후원하는 도시교회와 도움을 받는 농촌교회는 서로가 잘 연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조리한 상황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체험과 이해라고 본다. 즉 도시교회가 직접적으로 농촌교회를 체험해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도 도시교회에 속해있을 때는 농촌교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한 무관심은 농촌교회에 부임하여 직접 현장을 체험해보면서 비로소 깨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교회 성도들이 농촌교회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자는 예배를 통한 연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도에 인근의 도시교회와 연합하여 주일 오후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도시교회 성도 100여명이 본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 10여 명

남짓 모이던 오후예배가 의자가 부족해 통로까지 가득 찰 정도였다. 이를 통해 농촌교회 성도들은 활력 넘치는 예배에 감동하였고 도시교회 성도들은 농촌교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단 한 번의 연합예배였지만 본 연구자는 그 순간 지금 농촌교회에 필요한 것은 원거리의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 앉아 함께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더불어 노년의 농촌교회 성도들이 연합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과 기쁨은 예상외로 컸으며 그 여운도 오래 지속되었다.

안타깝게도 도시교회 입장에서의 연합예배는 단발성 행사에 머물렀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속적인 예배를 통한 연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연합예배는 교회적인 행사로 도시교회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도시교회는 국내선교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부원들도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선교부원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 사실 명단에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 활동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예배를 통한 연합에 이 인력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내 동일교단 도시교회의 국내선교부 상황을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21>은 도시교회 국내선교부의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 도시교회 국내선교부(회) 현황 (2013년 기준)

교회명	전주	남전주	삼례	충만한	새전주	초대
부원 수(명)	40	17	22	10	15	12
연간활동 상황	선교비 지원 친목회 (3회) 체육대회 (1회)	선교비 지원 친목회 (2회)	선교비 지원 친목회	선교비 지원	선교비 지원	선교비 지원

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시교회는 국내선교부를 공식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의 부원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활동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선교비 지원에 머물고 있다. 결국 국내선교는 선교비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국내선교부에 소속

된 회원들이 명단에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 정작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뜻과도 같다.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농촌교회 예배 참석을 통한 국내선교이다.

대부분 농촌교회는 단순히 예산부족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농촌교회라는 단어는 지리적인 명칭과 함께 고령화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미 오래전 교회학교는 사라졌고 청년부, 장년부 등 중심축 역할을 할 만한 세대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즉 농촌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활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 교회의 생명력은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느냐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많은 농촌교회가 예배의 역동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소수의 노인들만으로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동감 있는 예배에 대한 기대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고 더 큰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⁷⁶⁾ 이러한 기대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효율적인 국내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력이 바로 도시교회의 국내선교부(회)인 것이다. 직접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도시교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저 월 1회 정도 농촌교회 예배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20여 명의 젊은 성도들이 합류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농촌교회 예배당은 그리 크지 않다. 준비된 좌석도 많지 않다. 하지만 적은 수의 노인이 모이면 그 여백은 매우 커진다. 그곳을 한 달에 한번 만이라도 채우고 예배를 드린다면 농촌교회 목회자는 물론 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상황에 따라 찬양 인도나 특별순서 등을 준비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도시교회는 한 달에 한번 20여명의 성도가 소속 교회 예배에 불참하게 된다. 대부분 교회들은 본 교회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소속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민감하게 여기거나 엄격히 금하기까지 한다. 이는 예배가 어떻게 드러져야

76) 박재용, *농촌교회를 살리는 길* (서울: 한국기독교말씀사, 1998), 37.

하느냐보다 어디에서 드러져야하는가를 강조하는 잘못된 방침이다. 예배를 통해 농촌 교회가 활력을 얻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은혜로운 제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소수의 성도가 자리를 비운다고해서 도시교회가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이다. 도리어 국내선교부의 역동적인 활동이 도시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주게 될 것이고, 더불어 농촌교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예배를 통해 연합하는 것이 유기적 상생의 시작점⁷⁷⁾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 농산물 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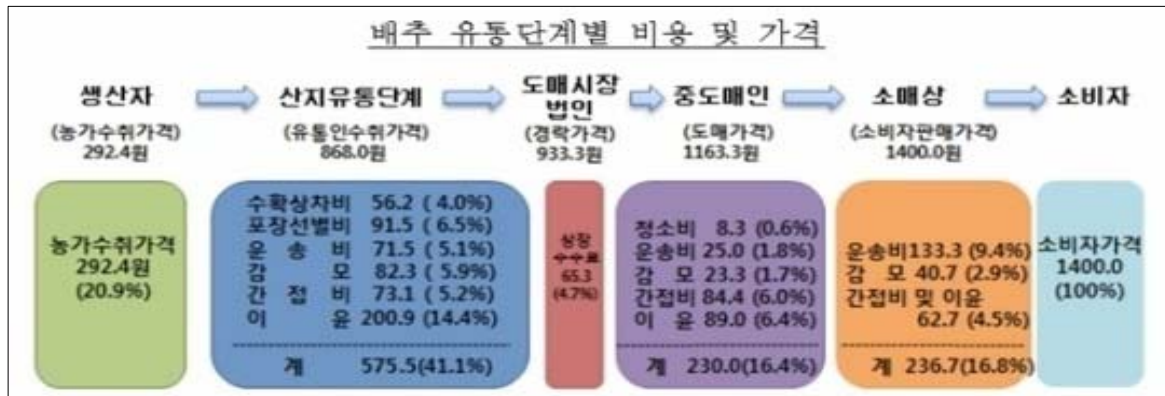
농산물 수확철이 되면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장면을 접하게 된다. 농부들이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자기 손으로 갈아엎고 폐기하는 모습이다. 수확을 해 봐야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폐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산지의 가격은 변동 폭이 큰 반면에 최종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여섯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다시 말해 생산자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싼 가격에 작물을 출하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가격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표 22>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추의 경우 생산지 가격은 300원에도 못 미치지만 소비자 가격은 1,400원에 이른다.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의 과정을 거치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단 배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퍼센트에 육박한다. 과일의 경우 50퍼센트, 채소류는 70퍼센트를 넘는다.⁷⁸⁾

77)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1), 113

78) 조승연, *한국농촌사회변동과 농업생산구조* (서울: 서경문화사, 2000), 43.

<표 22> 농산물 유통구조와 가격변화⁷⁹⁾



이는 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유통단계 때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고자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그나마 실효를 거두고 있는 방법은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이다. 중간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⁸⁰⁾.

이처럼 직거래장터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농촌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도시교회와의 결연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직거래로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기존 벼농사 위주의 농가 생산은 고소득 특화작물 제배로 변화하고 있다. 본 교회가 속한 지역도 벼농사 제배 가구보다 특용작물인 복분자, 블루베리 또는 각종 조경수를 제배하는 가구가 더 많다. 특용작물을 제배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수확 시기에 맞춰 도매 유통 업자를 통해 판매를 하지만 몇몇 가구들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구매자를 확보해 더 비싼 가격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즉 농촌교회가 더 많은 구매자를 확보해 생산농가와 연결해 준다면 농가 수익증대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농촌교회가 농작물의 효능, 수확시기, 예상판매가격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 도시교회는 전반적인 수요량을 파악한 후 구매의사를 밝히면 수확 시기에 맞춰 공급해 주면 된다. 계절별로 제배 및 수확하는 농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사

79)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web/www/home> (2012)

80) 허신행, *한국농업의 21세기 전략* (서울: 김영사, 1993), 77.

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더불어 상호간의 실질적인 상승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먼저 농촌교회는 생산 농가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게끔 도와줄 수 있다.

해당 농가가 교인일 경우 교회의 관심과 도움을 직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도시교회에 있어서도 양질의 농작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동시에 직접적으로 농촌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만족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다. 주말 농장

주말 농장은 도시 거주자들이 농장주로부터 농지를 빌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체험 장을 뜻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도시인들의 주말 여가 활동 비율이 급증하였다.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한적한 농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말 농장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는 급감하였고 그로인해 휴 농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동시에 가족과 농촌에서 주말 여가를 보내기 원하는 도시인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농촌은 주말 농장을 통해 도시 거주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경작지를 임대해 줌으로서 휴 농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말 농장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농촌교회도 주말 농장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을 이룰 수 있다.

농촌교회는 자체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인근의 휴 농지를 임대하기에 용이하다. 본 교회의 경우도 400평(약 1,320제곱미터)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교회의 재정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촌 목회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잉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말 농장의 도입이다. 도시교회의 신자들 중 주말 농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농촌교회의 주말 농장에 주목할 것이다. 장년층에게는 고향과 농촌에 대한 향수가 있고 젊은 세대는 삭막한 도시

를 벗어나 흙과 함께 휴식하고 싶어 한다. 더불어 자녀들에게는 주말 농장을 통한 농촌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주말 농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침체된 농촌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분명하다.

라. 수련회 및 각종 행사 유치

최근 도시교회 청소년부의 수련회는 대부분 교단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하는 연합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연합 캠프 형식의 수련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각 교회마다 수련회 시 교사 참여율 저조로 인한 어려움과 편리성 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매년 수련회 기간이 되면 청소년 연합 캠프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또한 도시교회 청소년부 담당자들은 획일화된 캠프가 아닌 특별한 체험이 될 만한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다. 농촌교회의 청소년 수련회 유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만한 대안이 될 것이다. 농촌교회는 수련회 개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촌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인원 관리가 용이하고 행사에 집중하기 쉽다. 또한 독거노인 주택 청소 및 인근지역 청소와 같은 실질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할 수도 있다. 본 교회도 매년 도시교회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지역주민 초청행사, 독거노인 가정 청소 및 세탁, 관할 경찰 지구대 위문품 전달, 인근 지역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교회 수련회는 도시교회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농촌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청소년 수련회는 특성상 농촌교회에서 숙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취침 공간과 취사 및 취식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수련회를 유치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수련회 유치는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도시교회의 부서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년 수련회와 달리 장년부의 행사는 당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영성수련회나 친목회 또는 임원 수련회와 같은 장년층 행사는 얼마든지 농촌교회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교회가 수련회나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자칫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분명 수련회 및 행사 유치는 도시교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촌교회가 활력을 찾아가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 장학 재단 및 자매결연을 통한 연합

본 연구자가 농촌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개인적으로 후원을 원하는 몇몇 도시교회 신자들이 있었다. 후원금액은 평균 월 5만원 정도였다. 이처럼 귀한 후원이 보다 값지게 쓰임과 동시에 후원자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자 모든 후원금을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물론 후원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원이 어떤 가정의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전달하였다. 다시 말해 도시교회 신자와 농촌교회 신자를 자매결연 맺어준 것이다. 이처럼 도시 신자와 농촌 신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후원 하는 가정이 네 가정에 이르고 있는데 가끔 도시교회 신자를 만나 후원에 대해 물으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교회 신자의 경우 자신들의 작은 후원이 직접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후원을 다짐하고 있다. 농촌교회는 매월 자매결연 맺고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봉사의 역할을 겸한 간접 전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시교회 후원자가 더 늘어날 경우 지역 학교에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월 5만원 씩 후원하는 신자가 두 명만 있어도 1년에 1백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적립된 장학금을 연 1회 내지 2회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학교와 학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농촌교회 이름으로 공식 장학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 농촌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도시교회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다. 어쩌면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봤을 때 농촌교회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교회가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 경찰 지구대, 보건소, 관공서 등과 같은 기관에 공식적인 후원을 하는 것은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촌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시교회와의 유기적 연합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막연한 후원에 자칫 지쳐갈 수 있는 도시교회 후원자들에게 확실한 명분을 부여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제 3 절 예배의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

앞 절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농촌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농촌교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성장은 결국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고령화와 인력 및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예배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해 농촌교회의 침체는 예배의 침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농촌교회 예배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배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농촌교회의 예배

농촌교회의 예배는 도시교회와 비교해 볼 때 제약이 많다. 일반적으로 도시교회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예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달된 찬양 팀이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한다거나 성가대가 예배 찬양을 주도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진행, 기도 인도, 말씀 봉독 및 광고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반면에 농촌교회의 예배는 순서를 분담할 만한 인력이 거의 없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임 목회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령과 학력 수준 등을 고려해 찬양과 말씀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다. 심지어 피아노 반주자마저 없어 예배 찬양을 반주기에 의존하기도 한다. 결국 농촌교회 목회자는 교리와 기본에 충실한 예배보다 상황과 청중에 맞춘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기본적인 예배의 구조 및 순서를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성도의 수나 재정의 부족은 사실 교회에 근본적인 문제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교회의 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예배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는 농촌교회의 갱신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농촌교회 예배 갱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농촌교회 예배를 상세히 분석해봄으로서 갱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가. 농촌교회와 동족부락(同族部落)

농촌교회는 대부분 동족부락 내에 위치한다. 동족부락은 같은 혈족이 모여서 만든 마을로서 전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사람이 모여 집단과 사회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다양한 문화가 생성된다. 동일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집단의 문화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수준,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해지며, 국가 간에 형성되는 문화는 지리, 인종, 기후, 언어, 종교, 사상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은 독창은 잘하지만, 합창은 못한다”⁸¹⁾는 평가가 있다. 이는 한국인들의 가족주의 및 개인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자연스럽게 경쟁 위주의 결과 지향적 사회 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약육강식의 삭막한 풍토를 정착시키기에 이른다. 후자는 이와 같은 경쟁 구도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하지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불법과 비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극단적 과벌을 형성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세기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 개인 및 집단의 사상이 굳게 다져지며 형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가족주의라고 부르며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현세 주의적이며 자신의 가족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가족 중심 사회의 수장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오로지 많은 재물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중심주의는 필연적으로 물질만능주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의식에 대한 결여를 불러오게 된다.⁸²⁾ 가족주의와 같은 한국인의 전통적 의식구조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많이 희석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의식구조가 팽배한 지역이 존재한다. 바로 농촌이다. 농촌의 경우 같은 성을 가진 혈족들이 모여 사는 동족부락의 형태가 많다. 동족부락은 배타적 ‘우리’의식⁸³⁾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들 안으로 유입 동화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동족부락의 경우 대부분 유교나 무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가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동족부락 내에 교회가 설립된다 하여도

8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6.

82)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8), 198.

83) 이이화, *한국의 파벌* (서울: 솔과학, 2004), 28.

포교에 있어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오랫동안 굳어진 의식구조, 특히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농촌교회가 급성장하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1980년대 절정을 이뤘던 경제개발은 농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때까지 생산의 근본으로만 여겨졌던 땅의 개념이 자산과 부의 가치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대대적인 공업화는 농업의 기계화를 불러오게 되고 그로인해 농가 생산량은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낙후된 곳으로만 취급되던 농촌도 비로소 살만한 곳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농촌의 삶이 윤택해 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도 다양해지는데 그 중 종교적 호기심이 서서히 커지게 된다. 못살던 농촌이 잘살게 되면서 부의 축적에 집중하기 시작한 농민들에게 당시 교회가 중점 적으로 가르치던 복(福)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교나 무교에 대한 오랜 신념도 실질적인 복, 수입의 증가 앞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농촌의 성장이 농촌교회의 동반 성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교회의 급성장도 오래가지 않아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농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는 이미 도시로 떠난 지 오래다. 농촌교회의 주축이 되는 세대도 떠나버렸다.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고령의 노인들이다. 농촌교회에 남아있는 신자들도 노인들뿐이다. 농촌지역의 학교들이 하나둘 폐교되면서 농촌교회의 주일학교도 사라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농촌교회는 농촌지역과 함께 희망성쇠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나. 농촌 교회 예배의 문제점

농촌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 기독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서지 않는 한 농촌교회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농촌교회의 회복과 성장은 예배의 갱신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 농촌교회 예배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용도가 높다. 교회 성장 분석가들은 대개 목회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지만 사실상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통 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 중 3~4퍼센트 정도가 평신도 지도자가 활동을 하는 반면 성장하는 교회는 8-12퍼센트⁸⁴⁾ 이상의 평신도 지도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신도 지도자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교회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해진 날에 함께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신자는 설교자나 성가대에 경의를 표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인 것이다. 흔히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받고자 하지만 그것은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다. 누구든지 예배를 위해 모였다면 그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맞춰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렬한 소망이어야 하며 그 소망이 헌신과 순종으로 표현될 때 보다 많은 평신도 지도자가 활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 하에 농촌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의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1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10명의 성도 중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이라고 하면 평신도 지도자 발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⁸⁵⁾. 아울러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받기 위한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신자라면 평신도 지도자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적은 수의 신자, 고령의 신자, 예배에 대한 오해가 농촌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어려운 직접적인 이유다.

84) 평신도참여율 조사, 바너리서치그룹, 1998

85)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서울: IVP, 1997), 47

(2) 예배와 무속신앙

사실상 한국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교는 무교이다. 무교는 한민족의 영원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미신적이고 저급한 종교에 불과한 무교를 우리 민족의 영원한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교가 사라진 적이 한 순간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압박을 받았던 조선조에도 무교는 굳건히 생존했다. 한국인의 성정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누가 뭐래도 무교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무교는 크게 흥왕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무속인이 대략 20만 명⁸⁶⁾에 이른다고 하니 그 세력이 얼마나 강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무교의 영향력은 한국인들의 놀이 문화까지도 형성하기에 이른다. 한국인들이 유독 음주가무를 즐기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무교에서 찾을 수 있다. 무당들은 신령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 망아경에 빠져 굿을 행한다. 이 망아경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무당이 취하는 방법이 바로 노래와 춤이다. 이처럼 신과 하나 되는 망아의 황홀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일반인들은 술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음주문화로 발전한 것이다. 결국 한국의 신명문화는 무당의 굿판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융통자재하다 할 정도의 무한한 포용력으로 외래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지만, 결코 본래의 고유한 원시종교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외래의 종교나 사상은 어느덧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고유의 원시 종교이다. 이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원시종교, 샤머니즘의 무서운 속성이요, 곧 한국인의 정신적 특성이다. 지금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종교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이념까지도 한국인의 이러한 특성 앞에서 언젠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지 말란 법은 없다.⁸⁷⁾

이처럼 한국인의 사상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무속신앙의 영향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때가 많다. 아무리 성서적 진리를 설파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샤머니즘적 고정관념과 기대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목회자는 샤머니즘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무조건적인 비판과 회피보다는 무속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 부분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속신앙

86)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1166.

87) 홍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2007), 129.

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면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⁸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문화적 양식 활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유한 문화적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포교에 유리하다. 이는 문화적 공백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종하는 사람들의 조속한 종교적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교적 상황화는 초기 한국 기독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현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역시 샤머니즘 속에 존재하는 최고신의 개념에 성경적 신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생성된 단어이다.⁸⁹⁾ 이는 참으로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크게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무속신앙의 요소들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샤머니즘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묘사된다. 동시에 그 삶에는 예측불허의 고난과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을 영력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때, 모든 고난의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거부감 없이 우리 민족의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영적 세계관에 있어서도 한국의 애니미즘과 기독교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다.⁹⁰⁾ 영계에 대한 공통적 인식은 두 종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며, 샤머니즘적 토양에서 성장한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⁹¹⁾ 동시에 영적 세계관에 기초한 복음의 전파는 한국의 민간층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일조하였다.

한국의 무속신앙은 한국 교회만의 특징적인 예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복을 기원하며 명확하지 않은 영적 존재를 향해 기도해왔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천상의 존재들이 감복하여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 믿었다.⁹²⁾ 그러한 전통적 양식이 교회 내에

88)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서울: 집문당, 2007), 89

89) Ibid., 94

90) 티벳, 1987:329-330

91)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97

92) Ibid., 108

서 활용된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다. 새벽 기도회는 무속신앙에서 천상의 복을 간구했던 전통 종교 행위의 기독교적 기능 대체라고 볼 수 있다. 새벽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역동성과 생동감을 함양하는 증추적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성도들은 이를 통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확신을 갖고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무속신앙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의 이면에는 한국인의 사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과 영생의 궁극적 가치보다는 현세의 축복이나 치유 같은 기복적 가치⁹³⁾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은 분명 성서적으로 잘못된 신앙이지만,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정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사회 경제적 발전 속에서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무속신앙의 영향력도 상당부분 약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교회도 신속히 본질적 복음전파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⁹⁴⁾ 샤머니즘의 토양 위에 기독교의 나무가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지, 그 나무가 썩어 토양에 흡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은 타종교나 사상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무비판적 수용은 외래 종교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로부터 다양한 상징적 양식들을 빌려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혼합주의’로 나타난다.⁹⁵⁾ 샤머니즘은 외견상 다른 종교들과 혼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심도 있게 살펴보면 샤머니즘 본연의 고유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종교로부터 차용한 상징적 양식들은 샤머니즘의 틀에 맞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두 종교의 혼합으로 보이지만 샤머니즘 고유의 신념 체계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샤머니즘은 고유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래 종교의 상징들을 필요에 맞게 활용한다. 불교나 유교의 경우, 그 종교들이 민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신념구조가 샤머니즘적 기본 구조에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두 종교의 본질은 상실되고 만다. 이러한 전철을 생각할 때, 한국 사외 내에서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 내에서 생존하게 될 종교

93) 김소영, "한국교회 예배 이대로 좋은가," *농어촌 목회와 신학*, 2000년 봄호, 65.

94) 이원일, "농어촌교회와 교육목회," 21.

95)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111.

는 무교라는 주장⁹⁶⁾과 같이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의 토양에 흡수돼 버릴 위험성은 매우 높다.

특히 기독교가 민간에 파고드는 과정에서 위험도가 커진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가운데서도 민간 기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요구 충족을 위한 영력 활용은 혼합 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으로부터 환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샤머니즘 속으로 흡수될 위험이 크다는 뜻이 된다.⁹⁷⁾ 따라서 기독교적 개념이 샤머니즘의 프리즘을 통과해 굴절, 왜곡되지 않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3) 예배와 유교사상

유교의 전통적 신념체계의 핵심은 단연 인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를 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으로 마무리 된다. 유교에서는 초월적 존재의 의미마저도 결국 인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유교는 하늘과 만물 곧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이러한 우주적 연관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도리를 근본 문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사상은 인도주의적 사상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인간은 초월적 존재와 자연적 존재 영역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무한한 우주로 그 조화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유교적 인간의 자기완성인 것이다. 하지만 이 유교적 자기완성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현실적으로 인간사에 있어서 다양한 대립요소와 갈등의 문제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인간의 출생 자체를 커다란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자연히 그 축복의 근원인 하늘과 땅, 그리고 낳아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가는 것을 인간의 가장 큰 의무로 여긴다.⁹⁸⁾

한 인간은 완전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조상과 연결되고 자식을 통하여 후손으로 연결되는 매듭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인간다운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버려야 하지만 인간

96) 홍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129.

97)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114.

98)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45.

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를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정당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기초인 것이다.

유교가 인간의 삶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다. 유교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채찍질 하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자기완성의 길을 가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자기완성이란 인간이 자신의 성품을 하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적인 지위를 지닌 무한한 존재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⁹⁹⁾ 유교에서 인간이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의무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하늘과 인간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 유교적 삶의 목표이며 이상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하늘의 명령과 일치하는 상태에 이르면으로써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유교에서는 ‘성인’(聖人) 혹은 ‘대인’(大人)¹⁰⁰⁾이라 부른다. 유교에서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으로 공경의 실천과 수양을 주장한다. 공경의 실천은 ‘충’(忠)과 ‘효’(孝)라는 두 가지 가치를 통해 구체화 되는데 이는 당시 소수의 집권층이 다수의 민중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율적인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자연히 유교사상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유교는 역사적으로 다른 이념이나 종교와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심지어 정통주의에 따라 이단 배척론이 엄격하게 시행되던 때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통성을 지켜온 것은 고귀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순수성의 고집은 폐쇄성을 야기하였고, 폐쇄성은 형식주의를 촉진시켰으며, 형식주의는 공허화를 초래했다.¹⁰¹⁾ 차라리 진리를 향한 개방적인 사고로 타 이념과 종교에 대해 호의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사선택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상의 생명력은 더 길어질 것이고, 영향력도 방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종교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교사상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농촌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특히 동족부락은 시제¹⁰²⁾와 같은 조상제사를 매우

99)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 39.

100) *Ibid.*, 40.

101) *Ibid.*, 236.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지낸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동족부락은 기독교 교회가 정착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행히 교회가 설립되고 정착한다 하더라도 뿌리 깊은 유교사상과의 끊임없는 대립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유교적 사고방식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노인들은 교회 내에서도 당연히 대접을 받기 원하고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유교가 목표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성화와 연결되면 좋겠지만 이미 통치수단이자 보수층의 명분이 되어버린 퇴색된 유교사상은 교회와 예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농촌 교회 예배 활성화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교회의 예배는 많은 변수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의 지역적인 한계나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가장 심각한 농촌교회의 문제로 여긴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이 농촌교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 농촌교회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배 갱신이다. 이는 비단 농촌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도 예배의 회복 없이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은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신자를 방종한 삶으로 내몰고 형식화된 예배는 그 누구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예배는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서 다른 무엇과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핵심이다. 이처럼 중요한 예배가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근본 회복이자 역할 감당인 것이다. 따라서 농촌교회의 위기극복 나아가 성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예배의 갱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예배의 본질 회복

(1) 예배 갱신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이다. 어떤 교회도 스스로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당연히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결국 신앙 수준은 예배

102) 시제(時祭):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을 기리며 지내는 제사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각화되어 갈수록 예배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통해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거나 혹은 5~10분 정도 늦게 도착해도 예배에 온전히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주일 예배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 예정된 시간에 끝나기를 바란다. 지루하고 졸린 예배 시간을 버텼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신은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라고 착각하며 교회 문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태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설교의 본문과 제목조차도 기억을 못 한 채 교회를 빠져 나간다. 예배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신자, 교회에 나올 때는 패잔병의 모습이었으나 예배를 통해 신령한 새 힘을 공급받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어 교회를 나서는 신자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는 현대 신자의 생활방식과 신앙 의식구조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교회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로 전락하지 말란 법은 없다. 즉,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자 제 자리 찾기의 시작인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가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배를 갱신해 보고자 시도해왔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배 갱신운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정 예배,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개발되었으며 획일화된 신앙생활과 예배에 실증을 느끼고 있던 신자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엄밀히 말해 예배 갱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일 뿐이었으며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예배의 본질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리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축소하는 경우까지도 생겨 예배 갱신을 외치며 예배의 본질을 더 파괴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배의 정형화된 틀에 유희적 요소를 첨가하여 분위기를 갱신해 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대규모 성가대나 오케스트라에 버금갈 만한 연주단을

조직하고 무용단이나 CCD¹⁰³⁾팀을 양성하여 예배에 참여시킴으로서 변화를 주고자 했다. 웅장한 예배 음악과 현란한 율동에 신자들은 환호했지만 이러한 방법도 예배를 갱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처음부터 예배에 지루함을 느끼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보다 예배를 콘서트 화 시키는데 더 크게 일조했을 뿐이다. 결국 예배 갱신을 목표로 시도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모순되게도 예배의 회복과는 무관한 구조적 변화에 머물고 만 것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의 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예배에 참여한 신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결핍된 인생이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성장해나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속박이 될 수 없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정점을 찍을 때 예배의 모습도 성경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었다. 다시 말해 많은 교회가 예배의 갱신을 부르짖고 본질의 회복을 절실히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우리는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간과한 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배자의 흥미와 편의를 고려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때에 비로소 참된 예배라 할 수 있다. 즉, 예배의 본질 회복은 순서와 방법의 변화 및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예배자의 영적인 갱신과 처음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예배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환언하면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

103) CCD: contemporary christian dance

을 추구하며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주목함으로서 현재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예배의 본질 회복은 교회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끼며 예배하던 초대교회와 타락의 정점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목숨을 걸고 모였던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를 다시금 재현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자만이 어두운 세상의 불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교회의 회복도 없다. 아울러 예배의 회복 앞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며 동일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예배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신자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다. 공적인 예배는 교회와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신약 시대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중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인정받는 청교도 시대에도 목회자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주민들을 공적인 예배에 출석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법률까지 제정했었다고 하니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를 기피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을 정도다. 결국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 신앙의 태만은 예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자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목회자에 대한 것도 아니다. 많은 신자들이 공적인 예배에 불참하고 나서 목회자에게 미안해하거나 눈치를 본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신자로서 예배를 게을리 하는 것은 명백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예배를 통해 확증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녀임을 망각할 때에 사람들은 예배와 멀어지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신자가 공적인 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예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본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를 향해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스스로가 신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는 마땅한 의무를 순종함으로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풍조, 엄밀히 말해 교회와 목회자 혹은 신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뜻과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습관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적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보상심리란 남들이 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인격을 갖추거나 혹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심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배하는 본질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게 된다. 즉 예배를 드렸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복신앙의 자세인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성경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차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유독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기복신앙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이전까지 자연이나 조상과 같은 불특정한 존재를 향해 복을 빌던 행위가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라는 통합된 존재에게 복을 비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기복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촌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행위로서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 따라서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취되지 않아도 예배가 잘못되

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그저 예배를 드렸으니 아픈 몸이 낫고, 막힌 일이 해결되며,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현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예배에 거부감 없이 참여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순탄치 않을 경우 예배에 불참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오로지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이사야서 1장 12,13 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었거나 예배의 태도가 습관적으로 고착되었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다.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즉시 고쳐야 한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태도도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첫 걸음이 된다. 이를 위해 목회자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경 교육이다. 기복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뿐이다. 도시교회의 경우 체계화된 성경 교육 프로그램과 충분한 운영 능력이 있지만 농촌교회의 경우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농촌교회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신자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성도만이라도 유지하고자 그들이 듣기 원하는 축복과 형통의 말씀으로 단을 채우고 있는 농촌교회가 많다. 이러한 말씀 선포는 근본적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농촌교회 일수록 예배의 본질 회복 및 신자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기회가 예배 중 말씀의 시간이라고 볼 때 목회자는 그 중요성을 필히 느끼고 바르게 선포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교회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야 할 효과적인 복음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농촌교회 예배에 선포되어야 할 복음

복음은 하나이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고 적용되는 형태는 지극히 다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접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는 가장 적절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듣고자 한다. 예수의 복음이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시대적 정황과 청중들의 삶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포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후에 기록되어진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성경이 신적 계시를 통해 기록된 하나의 절대적 진리이긴 하지만 각 권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독특한 선포방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다각화 되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중들에게 더 이상 획일화된 복음 선포는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예수께서도 행하셨듯이 청중이 가장 갈급해 하는 부분을 복음을 통해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 선포의 새로운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복음 선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본 교회 목회 현장의 상황은 참으로 열악하다. 폐쇄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교회가 이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안정권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삶은 여력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니 본 교회에 있어서는 그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다. 이제 이 교회에 남은 유일한 생존의 길은 복음 선포를 통한 성도의 예배 회복 및 인식의 변화뿐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로한 가운데 장기간 가족의 돌봄이 없는 상황이기에 삶의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지 오래다. 요양원이나 노인 복지관 같은 시설에서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의 공간은 교회뿐이다¹⁰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회마저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교회가 본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을 통한 신앙 성장, 복음 선포를 통한 소망 회복을 감당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가 먼저

104) 임춘식,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1), 215.

성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획일화된 지식처럼 목회현장도 획일화 되어 있지는 않다. 너무도 다양한 현장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청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평생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현장과 청중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복음의 선포는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회자는 언제든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는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주석 작업도 없이 설교 자료만 가지고 단에 서는 것은 현장과 청중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석 작업과 더불어 저작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저자의 의도, 세계사까지도 고려한 포괄적 말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경의 다양성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청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정황에 맞는 적절한 복음 선포가 성도의 신앙회복을 이루고, 성도의 신앙회복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며, 이 모든 것이 목회자의 성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무엇인가?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로한 가운데 생활도 윤택하지 않다보니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 있는 상황이다. 생활고 해결과 자녀들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이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이는 지극히 세속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풍족한 삶 가운데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과 결핍된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얼핏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세속적 욕망에 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도시인과 홀로 남아 고독을 느끼는 시골의 노인은 크게 달라 보이지만 둘 다 인간 본연의 욕망을 해소하고자 원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촌의 연로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 속에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인간적인 욕구가 남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신앙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하지만 궁극의 승리자요 구원자이신 예수의 실제 사역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가능하다. 성도들에게 현세에 머물러 있는 세속적 인간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고난도 내일의 소망을 향한 과정일 뿐이라는 미래 지향적 신앙관을 심어준다면 그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생겨나게 될 것이다.

현재 본 연구자의 목회현장에는 성도들의 내적인 신앙성장을 이끌어 주는 것만큼 절실한 과제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말씀의 실천이다. 대부분이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자들이기에 생활권 내에서의 대인관계(특히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성도들의 사회생활 태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한 곳에서 오랜 세월 정착 생활해 왔다. 즉, 성도들이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말씀에 기초한 헌신적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교회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가장 집중해서 선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리 다양하고 적절한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복음은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의무는 지속적인 관심과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도들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체험을 통한 확신과 모범이 되는 정결한 삶이 함께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위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가 유용하리라고 본다. 마태는 특별히 그의 복음서에서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고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와 신앙의 지침이 되어 왔다. 마태는 말씀을 통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성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역동적인 복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단 본 연구자의 목회 현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

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이며 동시에 예배의 회복을 위한 복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나.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 개발

교회 성장의 근본적인 힘은 예배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은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이다. 현재 많은 농촌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도시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기독교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시각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임에 분명하다. 결국 현재 한국 교회 전체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더 늦기 전에 성장 중심의 세속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본질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예배의 갱신이다. 교회가 다른 세속의 기관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영혼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실현되는 것은 가장 먼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교회는 예배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의 본질을 회복하며 동시에 계수화 된 성도 숫자가 아닌 세상을 능히 이길만한 권능의 성도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듣게 된다. 이러한 예배가 반복될수록 성도는 신령한 지혜의 축적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점차 성장하는 신앙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농촌교회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기복신앙과 조건부신앙에 익숙해져왔다. 현재 농촌교회의 몰락은 예배라는 본질을 무시한 채 농촌이라는 환경과 사회적인 흐름에 교회 성장을 맡겨온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농촌교회의 성장도 예배의 갱신과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대는 당장의 위기 회피를 위한 미봉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 숫자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보다 성서적인 예배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본 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예배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농촌교회 예배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1) 교회력 중심의 예배

교회력이란 완성된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재림의 모든 내용이 교회력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아이는 매년 반복되는 자신의 생일을 조금씩 기억하고 의식하며 성장한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비롯하여 부모의 생일, 형제의 생일도 더불어 기억하고 지키며 성장해 간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력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절기를 지킬 때 신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끊임없이 구원사의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의 기초가 바로 교회력인 것이다. 그래서 피우스 파쉬(Pius Parsch)는 교회력을 가리켜 ‘은총의 교회력’¹⁰⁵⁾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심지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유산으로 매도하기 까지 했다. 이처럼 교회력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오랫동안 교회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것이 지금 농촌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절기와 교회력의 절기 사이에 많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력에 깊은 관심을 갖는 농촌교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없다. 하지만 농촌교회의 경우 대림절, 사순절, 오순절 등의 절기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특성상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일 년 중 가장 큰 절기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교회력 교육과 절기업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이며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거쳐야 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의미를 상기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교회력에 따른 절기업수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성장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분명 농촌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5) 정장복, *예배학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129.

(2) 예배와 성찬예식

성찬예식은 초대 기독교부터 예전의 극치를 이루며 매주일 거행되었다. 신자들은 매주일 성찬예식을 통해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므로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교단과 교회는 성찬예식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주일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이 성서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는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에서 많게는 80퍼센트까지 육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준비 및 집례의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교회가 성찬예식의 가치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정착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실정이다. 가장 온전하게 지켜져야 할 성례전이 한국 교회 내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독교 예배는 설교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다. 예배의 순서와 의미는 무시된 채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느냐가 신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당연히 목회자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들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설교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한다. 때로는 설교가 목회자의 권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선동 및 홍보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까지 있다. 소위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된 특징은 설교의 질이 어떠한가로 점철되기까지 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 없이 명 설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결한 제사로서의 예배 의미를 희석시키고 심한 경우 예배의 현장을 강연장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많은 개신교회 신자들이 가톨릭교회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예배의 의식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교회는 보다 정결하고 질서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성찬예식의 정착 및 활성화이다.

본래 예배학적으로 성찬예식은 매주일 마다 거행되어야 하지만 당장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2013년도부터 월 1회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덧 성찬예식이 교회의 특징이자 자랑으로 정착되었다. 매월 첫 주일예배는 모든 신자들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1년에 12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횃수라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의식에 참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찬의 의미를 정립해 가고 있으며 매월 첫 주일예배만큼은 반드시 참여하려고 하는 행동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성찬을 통해 신자는 예수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는 단순한 친교의 개념을 넘어 예수가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동시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성찬예식은 신자에게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의식을 통해 더욱 진지한 자세를 가르칠 수 있다. 동시에 목회자 역시 성찬예식을 준비하면서 엄숙한 예식에 실수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므로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성찬예식을 통한 긍정적인 작용은 결국 예배 갱신과 연결되고 예배의 갱신은 농촌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교회성장을 이루는 결과를 불러왔다.

(3) 농촌교회와 구역예배

한국교회의 부흥은 구역예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구역예배의 역할이 막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지 오래며 대부분의 교회가 여전히 구역을 나누고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역을 통한 교회성장의 효과는 지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본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구역의 구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개념이 일반적인 구역과는 많이 달랐다. 평신도 지도자가 없이 목회자가 직접 예배를 인도해야 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구역예배라는 명칭보다는 가정예배라는 명칭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왔다. 본래 두 개의 구역이 존재했으며 두 구역 모두 목회자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도심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도시 성도들이 구역예배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의 개념보다 손님접대의 개념이 더 컸으며 그로인해 자연스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구역예배가 형식적인 모임 혹은 회피대상으로까지 전락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는 달랐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기에 목사가 직접 방문해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은 한 주간의 생활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도 물질과 건강의 복에 대한 말씀을 선호하였고 자신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였다. 가정예배 출석률은 당연히 높았으며 가정예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주일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노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예배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으며 모임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처럼 농촌사회에서 가정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씨족사회를 근본으로 한 자연스런 인간관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교회가 속한 지역은 전통적인 씨족 부락이다. 주거지의 확산과 이농으로 결속력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부락이 6촌 이내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성도의 관계보다 가족의 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 모이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수십 년간 맺어온 가족관계 속에서 남의 집도 자신의 집처럼 친숙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의 주거형태도 도움이 되었다. 도심의 공동주택은 공동체 모임 특히 예배를 위한 모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의 주택은 여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모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거의 모든 집에 마당이 있으며 다수의 가족이 모임 경우를 대비해 넓은 마루와 주방도 갖추고 있다. 서구의 주택과 비교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도심의 주거형태와 비교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농현상에 의한 독거노인의 증가도 가정예배 모임에 도움이 되었다. 분명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현상이지만 그로인해 가정예배는 활성화되고 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안정을 느낀다. 노인들의 경우 상호의존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농현상으로 인해 자녀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거의 다 농촌을 등지고 떠나버렸다. 넓은 집에서 여러 명의 가족구성원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노인들을 엄습하게 된 것이다. 한적 할대로 한적해진 농촌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정예배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노인들에게 그 모임의 의미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13년부터 두 개였던 구역이 세 개로 확대되었으며 두 곳의 구역장 및 강사를 평신도가 맡아 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자는 한 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목회자가 직접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해주길 바라던 기존 신자들의 의

식도 많이 변하였으며 어떠한 강제성이나 부담감 없이도 평신도들끼리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모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교회는 구역의 운영도 어려울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농촌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구역예배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중이다.

(4) 바람직한 농촌교회 예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에 대한 의식 변화와 실질적인 갱신의 시도는 근본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농촌교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농촌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침체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농촌교회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즉각적인 성장과 교회의 권리를 유지하는 도구로 예배를 악용하거나 성서적 진리에 입각한 예배 개발과 도입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선 예배를 통해 찾아야 한다. 교회가 예배를 바로 세우는데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나 신자들의 고령화 같은 요소들은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어떤 교회든지 정결한 제사로서의 예배를 집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조금씩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이끈다면 분명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점진적인 성장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교회의 예배도 성서적 기준과 예배학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동시에 오랜 역사를 통해 지켜 온 기독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배의 형태와 순서는 성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기독교 역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예배의 형식과 자율성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성경과 역사의 기준 안에서 예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배 현장과 회중을 고려하며 보다 효과적인 예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바람직한 예배는 전통과 효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는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리로 드러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배,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질서 있게 드러지는 예배, 예배에 참여한 신

자의 근본적인 신앙 성장을 촉구하는 예배,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사명 감당의 시작점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목회자 한 사람의 설교만으로 이러한 예배의 의무를 모두 감당하도록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불변의 자료는 성경¹⁰⁶⁾이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자가 속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표 23>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규정¹⁰⁷⁾하고 있다.

이 <표 23>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예배순서 및 신정중앙교회의 예배순서가 수록되어있다. 신정중앙교회의 예배순서를 살펴보면, 소속교단이 규정하고 있는 순서를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소식안내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같이 예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예배를 인도할 때 중간에 교회소식을 전할 경우 예배의 흐름이 깨지는 경향이 있어 모든 예배순서의 마지막에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정중앙교회의 예배는 다른 농촌교회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신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예배의 의식적인 부분도 충족시키고 있다.

그동안 농촌교회의 예배는 신자들의 고령화와 교육수준, 교회의 열악한 상황에 따라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총체적인 농촌교회의 위기 가운데 최소한의 현상이나마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했다. 순서를 간소화하거나 예식적인 요소를 생략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배의 정결성과 본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동시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 현실화되고 계승된다. 즉, 교회가 예배의 원리와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농촌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침체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바로 세우고 지켜나갈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농촌교회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할

106) 정장복, *예배학사전*, 613.

10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24조 예배와 성례전 3항

것은 농촌이라는 위치가 아니다. 농촌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라는 점이다. 농촌교회는 더 이상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거룩한 처소로서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농촌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표 2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배순서와 신정중앙교회 예배순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예배순서 ¹⁰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순서 ¹⁰⁹⁾	신정중앙교회 예배순서
① 예배로의 부름	① 전주	① 예배로의 부름
② 경배 찬송	② 예배의 말씀	② 개회기도
③ 시편교독	③ 응답송	③ 경배 찬송
④ 참회의 기도(개회기도)	④ 기원	④ 사도신경고백
⑤ 주님 가르치신 기도	⑤ 경배의 찬송	⑤ 시편교독
⑥ 성경봉독	⑥ 성서교독	⑥ 찬양
⑦ 찬양	⑦ 사도신경	⑦ 참회의 기도
⑧ 설교	⑧ 찬송	⑧ 성령임재의 기도
⑨ 사도신경 고백	⑨ 목회기도	⑨ 분별례
⑩ 응답의 찬송	⑩ 주기도	⑩ 분간례
⑪ 헌금과 기도	⑪ 성경말씀	⑪ 성경봉독
⑫ 성령임재의 기도	⑫ 찬양(찬양대)	⑫ 설교
⑬ 분별례	⑬ 설교	⑬ 헌금
⑭ 분간례	⑭ 설교 후 기도	⑭ 감사의 기도
⑮ 감사의 기도	⑮ 헌금	⑮ 송영 (주님 가르치신 기도)
⑯ 송영	⑯ 헌금송	⑯ 축도
⑰ 파송의 말씀	⑰ 감사기도	⑰ 파송의 말씀
⑱ 축도	⑱ 찬송	⑱ 교회소식 안내
	⑲ 축도	
	⑳ 후주	
	㉑ 성도의 교제 및 교회소식	

108) 권혁승, *성결교회신학*,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07), 596

109) 정장복, *예배학사전*, 591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농촌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전형적 농촌교회인 신정중앙교회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지난 4년간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한 본 연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교회는 성장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상가상으로 목회자들의 외면을 받기까지 한다.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촌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회가 세속적 기준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수행해 나갈 때 근본적인 변화와 성서적 기준의 바람직한 성장도 이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농촌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가치보다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 이미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를 제약하게끔 방치한 것이다. 농촌은 고령화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었으니 그 곳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선부른 판단 하에 농촌교회를 기피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불과하다. 농촌교회는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지배받는 교회가 아니라 농촌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목적이 있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즉, 농촌이 열악하니 그 곳에 있는 교회도 열악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농촌에 예수의 사랑과 복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농촌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교회는 전적으로 성서적인 가르침과 목적을 따라 나아가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 및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나오게끔 유

도하는 것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작은 헌신과 봉사를 실천할 때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가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로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농촌교회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 이상 농촌교회가 동정의 대상이나 기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낮은 자리라 할 수 있는 농촌을 외면한다는 것은 비성서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점은 바로 목회자의 바른 사명과 자세이다. 농촌교회를 연로한 목회자의 종착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농촌교회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 위해 잠시 스쳐가는 간이역이 되어서도 안 된다. 농촌교회 목회자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마음가짐과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 신자들도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힘 있는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교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놓일수록 예배에 집중하였다. 도무지 모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목숨을 걸고 정결한 예배를 드림으로서 거룩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지금 농촌교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 받으실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예배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욱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데 힘쓰고 예배를 통한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신자들에게 제공하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농촌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소리가 있다. 본 연구자도 이전까지는 그 의견에 동조했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농촌교회 목회를 통해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동시에 지금도 3장에서 살펴본 농촌교회 활성화를 이룬 농촌교회의 사례들처럼 분명 여러 곳에 변화하고 성장하는 농촌교회가 있으며 목회자의 인식변화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신정중앙교회는 2010년도 대비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났으며 당시 12명에 불과했던 신자는 2014년 현재 34명으로 성장¹¹⁰⁾하였다. 이처럼 부정할 수 없는 경

110)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신정중앙교회의 모습은 부록 5를 참고할 것

힘을 하였기에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농촌교회는 더 이상 농촌에 있는 작고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농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며 축복의 통로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본 연구를 맺는다.

부록 1

정읍시의 원류인 큰 새암



정읍시의 정(井)은 우물을 뜻한다. 사진의 우물은 신정중앙교회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읍의 원류인 큰 새암이다.

부록 2

천도교와 동학농민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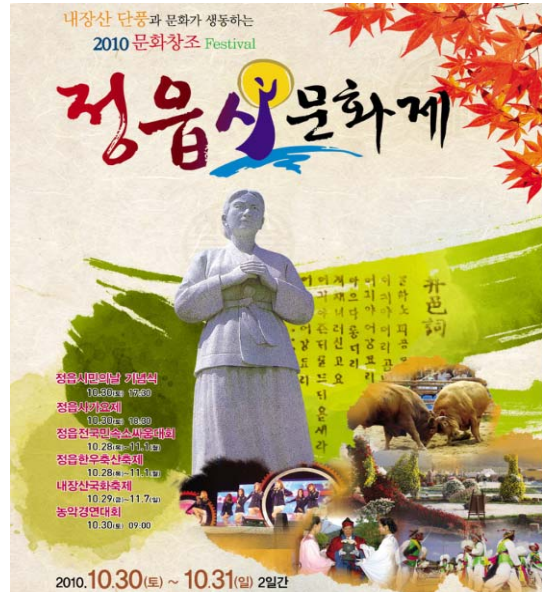


- 정읍시는 천도교와 동학농민운동의 요람으로 시는 관련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출처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http://donghak.jeongeup.go.kr>

부록 3

백제 가요 정읍사와 망부석



· 정읍사 공원에 설치된 망부석상

· 정읍시는 해마다 정읍사를 중심으로 문화 관광 행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정읍시의 공공 구조물은 모두 정읍사 여인을 주제로 설치되고 있다.

· 정읍사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정읍사 문화제 <http://www.jchf.or.kr/main>

부록 4

신정중앙교회 이미용 봉사



- 전주성결교회 이미용 봉사단의 정기적인 방문봉사로 신정중앙교회 이미용 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주교회 홈페이지 <http://www.jehc.org/>

부록 5

신정중앙교회 관련 보도 및 현황

기독교성결신문
THE CHRISTIAN HOLY NEWS

뉴스 기획특집 오라니언 독자미팅 자료실

인물미팅 | 행사자료 | 선교영상 | 행사영상 | 기도영상 | 사경자료실

뉴스
NEWS

종합뉴스
교론
지보통
교계
교황
인물
실경
문화
신학
선교
교회
문화
가정

사경
문헌

신정, 전지산문화기

하나님 두려워 하고, 사람 사랑하는 목회자
신정중앙교회, 박신구 담임목사 취임

2012/04/09 22:48:54

전북중앙지방회 신정중앙교회(박신구 목사)는 지난 9월 22일,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갖고 더욱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사회는 이승보 목사(영성교회)가 맡아 진행했으며 권지연 장로(지방회 부회장)의 지도에 이어 박정용 목사(지방회장)가 소가라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령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 설교에서 박 목사는 소가라 선지자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여호와와 구원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상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회장이 목사와 성도로부터 서약을 받았고, 담임목사에게 전권행권을 부여했다. 또한 오성택 목사(남원주교회)가 환영을 했고, 최신석 목사(은누리교회)가 축사를 했다.

이어 박신구 목사는 담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상진 목사(신정중앙교회 영예목사)가 축도함으로 예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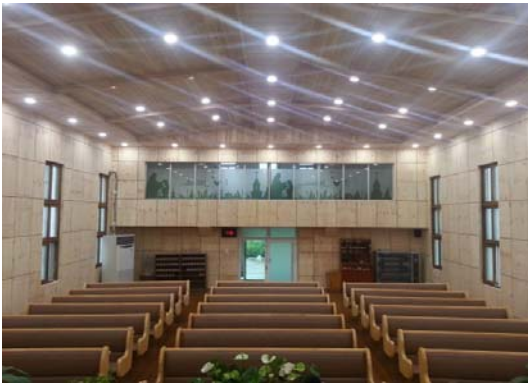


세한교회(정진호 목사) 고등부가 밤에는 신앙집회로 영성을 충전하고 낮에는 지역 전도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섬기는 특별한 수련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4~7일 신정중앙교회(박신구 목사)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고등부 학생 600여명은 농촌봉사와 섬김 활동을 실천하며 영성을 쌓았다. 저녁에는 성경은사 집회를 통해 신앙을 재우장한 학생들은 낮 동안 봉사와 전도로 신앙을 실천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주제가 걸맞게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집회를 뜨겁게 달궜으며,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음청소와 농촌의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도 하고 주민들

- 2010년도 취임식 관련기사



- 신정중앙교회 수련회 유치관련기사



- 신정중앙교회는 그 동안의 성장 결과로 2014년도 하반기 예배실 리모델링을 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8.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 권혁승. *성결교회신학*.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07.
-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 김세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1.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3.
- 김소영. *한국교회 예배 이대로 좋은가*. 서울: 농어촌목회와 신학, 2000.
- 김재준. *한국의 재래종교와 그리스도*. 기독교 사상 강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 김태호. *농촌사회문제론*. 서울: 농림수산정보센터, 2002.
- 김희주. *농민의 길*.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 노영식. *한국인 교회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침례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 역사, 2009.
- 박경숙.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 문화사, 2003.
- 박시현 외. *농촌관광: 산업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박영신.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 박재용. *농촌교회를 살리는 길*. 서울: 한국기독교말씀사, 1998.
- 배현수. “농촌교회에서 노인목회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성결교회목회, 21세기 목회 매뉴얼*. 서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출판부, 2007.
- 설상원. “농촌지역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 사역.”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 안종현.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유의영.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도림교회 7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유해근. *노마드에게서 배우는 한국 교회의 미래*. 서울: 나그네, 2006.
- 이원일. *농어촌교회와 교육목회*. 서울: 농어촌목회와 신학, 2003.
- 이이화. *한국의 파벌*. 서울: 솔과학, 2004
-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서울: 집문당, 2007.
- 전라북도. *2013 전북사회조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2013.
- 전라북도. *제 50회 전북통계연보*. 서울: 대광출판사, 2010.
- 정용섭. *교회갱신신학*. 서울: 기독교출판사, 1978.
- 정읍시의회보도자료. *초 고령화에 따른 정읍시행정은 어디로 가는가*. 정읍: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2013.
- 정읍시. *정읍시통계연보*. 서울: 대광출판사, 2009.
- 조승연. *한국농촌사회변동과 농업생산구조*. 서울: 서경문화사, 2000.
- 정인교.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 서울: 청목, 2005.
- 정인식. “농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정장복. *예배학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 _____. *설교학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4.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용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서울: 페이퍼로드, 2006.
- 최재율. *농촌과 사회학*. 서울: 유품출판사, 1996.
- 한국농업정책연구원. *2014 농업 산업 연감*. 서울: 농업정책연구원 편집부, 2014.
-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4*. 서울: 동아일보, 1993.
- 한용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허신행. *한국농업의 21세기 전략*. 서울: 김영사, 1993.
- 홍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2007.

2. 번역서적

- Abba, Raymond.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Bilezikian, Gilbert G. *공동체*.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Damos, Hasegawa. *이 사람아! 노년에 무슨 재미로 사나*. 성동석, 김수진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6.
- Hoekendijk, J. C.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Moltmann, Jurge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Schnucker, Calvin. *농촌교회목회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Smart, James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운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 Smith, Oswald J. *구령의 열정*.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Snyder, Howard A.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7.
-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 Watson, David.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1
- Webber, Robert E.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8가지 원리*. 황인걸 역. 서울: 예본, 1999
- White, James F. *기독교예배학 입문*. 장정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Vita of
Shin Ku Kwa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hinjung Central Church, Jeongeup

Personal Data:

Birth Date: March 24, 1977
Marital Status: Married to SaeNa Park
Home Address: 60, Jeongchon1-gil, Jeongeup, Jeollabukdo
Denomination: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Ordained: April 19, 2009

Education:

B. A.: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2002
M. Div.: Seoul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Ministerial Experience:

5/2010 to present: Senior Pastor
of Shinjung Central Church, Jeongeup
1/2008 to 3/2010: Assistant Pastor
of Jeonju Evangelical Holiness Church